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거-'에 대한 연구

國語國文學科
구 재 희

1994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거-'에 대한 연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5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구 재 희

구재희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차 현 실

審査委員 ____________

____

차 현 실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목 차

I. 서 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선행 연구의 검토 4

C. 인용 자료 10

II. '-거-'의 형태론적 식별 11

A. '-거-'와 '-어1-', '-나-' 11

B. '-거-'와 '-어2-' 13

C. '-거-'와 '-과-', '-가-' 17

III. '-거-'의 통합적 특성 20

A. '-거-'와 용언의 상적 특성과의 관계 21

B. '-거-'와 다른 선어말어미와의 관계 30

1) 선어말어미 배열 순위의 특성 30

2) '-거-'와 다른 선어말어미 결합의 특성 38

C. '-거-'와 어말어미와의 관계 46

1) 종결형에서의 의미 47

2) 연결형에서의 의미 53

3) 관형형에서의 의미 56

Ⅳ. 결 론 58

참 고 문 헌 60

ABSTRACT 64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비교적 생산성이 있었던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거-'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문제를 검토하여, '-거-'의 범위를 획정하고 '-거-'의 문법적 의미를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장에서는 '-거-'의 이형태 '-어1-'과 '-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어1-'과는 구별되는 또다른 '-어2-'를 검토하여 '-거-'와 분포와 의미에 있어 차이가 없고 용언의 종류에 의해 선택되는 이형태임을 보았다.

Ⅲ장에서는 '-거-'가 쓰이는 환경, 즉 용언과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와의 관계속에서 '-거-'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폈다. 용언과의 관계를 통해 중세국어에서 '-거-'의 주된 기능이 과거나 완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임을 보았다. 용언의 상적 특성에 따라 '-거-'가 쓰인 용례는 완료와 현재상태로 해석되었다.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거-'는 발화시 직전에 완료된 과거로 해석이 되고,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진 용언에 쓰인 '-거-'는 현재상태로 해석됨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제성은 어떠한 時相 선어말어미도 쓰이지 않은 용례와 비교해 볼 때 용언의 상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보았다. 즉, '-거-'의 기능은 時相기능이 아니고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선택되는 것이다. 화자가 사태를 확정적으로 파악하거나 사태에 대한 확신이나 정감을 표현하는 기능이 '-거-'의 주된 기능임을 보았다.

선어말어미와의 관계를 통해 '-거-'의 기능 변화의 가능성을 찾았다. 선어말어미들의 배열순위는 '-거-'의 기능이 변화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거-'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한다. 즉 '-시거-'형과 '-거시-'형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순위는 점차 '-시거-'의 위치로 고정되고 '-거-'의 기능은 시상범주에서 서법범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더-'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더-'는 '-거-'와 배열순위가 같고 배타적인 분포였다. '-거-'와 '-더-'의 변화의 원인은 '-엇-'의 형성으로 추정했으며 '-엇더-'와 '-엇거-'형을 통해 '-거-'와 '-더-'가 서법 기능임을 보았다. 그러나 '-거-'기 본래의 相기능을 잃고 서법화 과정을 통해 語尾와 통합되어 어미화가 진행되거나 쓰임이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더-'는 時相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거-'의 서법적 의미는 평서형 종결어미에서 비교적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나연결어미와의 결합은 점차 굳어져 어미화되고 있으며, 時相기능의 쓰임은 관형형에서 볼 수 있는데 점차 제한되어 쓰였다.

'-거-'의 통합상의 특성 고찰을 통해 '-거-'가 완료의 시상범주에서 서법범주로 진행되어 중세국어에서는 이미 시상기능은 소실되어 가고, '-거-'의 주된 기능은 서법적 쓰임, 즉 화자의 확정적인 태도에 의해 선택되는 형태소임을 보았다.

Ⅰ.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중세국어에서 '-거-'는 생산력있는 선어말어미로서 독립된 영역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점차 그 쓰임은 제한되어 현대국어에서는 '-거든', '-거니', '-거늘' 등의 연결어미의 형태로 굳어져 나타나거나, 직접 명령법 활용형 '-거라'에서 그 잔재가 확인될 뿐 중세국어만큼의 생산성 있는 선어말어미로의 쓰임은 보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 있어서 '-거-'에 대한 논의는 서태룡(1988)에서 이루어 졌는데 중세국어에서 주로 [과거][완료][확인]으로 설명되는 것과는 달리 [미정, 미완료]로 설명된다.

(1) 가. 비가 그치거든 나는 떠난다.

나. 그는 나이도 많거니와 건강도 좋지 않다.

다. 철수가 들어오게 영희가 문을 열었다.

(1)은 서태룡(1988)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선어말어미 '-거-'와 어말어미의 통합형이다. '-거든', '-거니와' 등의 통합형어미에서 재분석의 방법으로 '-거-'를 분석하여[1] '-더-', '-느-'의 의미와 대립되는 [미정, 미인식]으로 '-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다)의 보조적 연결어미 '-게-'를 '-거-'와 '-이'로 재분석하여 '-거-'의 [미지각][가능]의 의미

---

1) 서태룡(1988:21)에서는 동일 구성요소를 공유하는 통합형들의 형태론적 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통합형들에 의한 통사론적인 현상들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실마리를 마련해 준다고하여 통합형에서 재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형에서 재분석되는 '-거-'의 기능은 중세국어에서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를 얻어내고 있다.[2] 그러나 '-거늘', '-거나', '-거든' 등의 통합형에서 '-거-'는 하나의 독립된 형태소로서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현대국어 연결어미 통합형에서의 '-거-'는 형태소 확인의 식별 기준인 계열, 통합관계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어미로 다루어져야 한다.[3]

반면에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거-'는 연결형에서뿐만 아니라 종결형(평서형, 의문형), 관형형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만큼 '-거-'의 사용 분포가 넓었고 그 기능도 현대국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2) 가. 衆生이 福이 다ᄋᆞ거다 (석보 23:28)

나. 能히 韋郎으로 ᄒᆡ여 자최ᄅᆞᆯ 또 疎히게 ᄒᆞ거녀 (두언 21:25)

다. 내 어미 죽건디 아니 오라니 (월석 21:27)

(3) 가. 諸佛이 다 그 녀글 向ᄒᆞ야 說法ᄒᆞ거시든 一切佛法을 다 能히 바다 디니며 (석보 19:22)

나. 사ᄅᆞᆷ ᄇᆞᆯ 보아시든 몬져 말ᄒᆞ시며 (월석 2:58)

(2)는 중세국어에서 용언어간에 직접 '-거-'가 쓰인 용례로 현대국어와는 다른 분포에 '-거-'가 쓰인 것이다. (2가)는 평서형에서 '-거-'가 쓰인 용례로서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례이다. (2나)는 의문형에, (2다)

---

2) 임홍빈(1976, 1980)에서도 '-게', '-겠-'에서 '-거-'를 분석하여 그 기능을 對象化로 설명하고 있다.

3) 고영근(1978)에서 형태소 식별 기준으로 ① 構造的 樣相의 共通性 ② 意味上의 特殊性 ③ 音韻論的 顯現方式의 特殊性을 제시하였다. ③에 근거해 연결어미 통합형에서 '-거-'의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으나 그 후의 논의를 통해 통합관계, 계열관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형태소 자격을 주지 않았다.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가 삽입된 '-거시늘', '-거시든'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역시 '-거-'의 형태소 확인이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거-'와 배타적 분포를 가지는 '-더-'와 계열관계를 통해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거-'의 의미를 구하고, '-거-'의 기능변화 과정을 예측하게 하는 '-시-'와의 결합순위에 주목한다.

는 관형형에 쓰인 ‘-거-’의 용례로 역시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례이다. 중세국어의 ‘-거-’는 그 쓰임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현대국어보다 생산력이 있었고 선어말어미로서 분명한 영역을 차지했었다.

(3가)는 연결어미에 쓰인 ‘-거-’의 용례인데 현대국어와는 달리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거-’에 후행되고 있다. 그리고 (3나)는 (3가)와 동일한 분포에 ‘-아/어-’가 쓰이고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형태이다.

현대국어에 비해 다양한 분포에 쓰이던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거-’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時相과 敍法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시상범주에서 [과거], [완료]로 설명되기도 하고 서법범주에서 [강조], [확인], [가상]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그 문법적 기능을 설명하는데 일관된 견해로 수렴되지 못하는 것은 ‘-거-’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그 쓰임이 점차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5세기는 현대국어의 완료 기능의 선어말어미 ‘-었-’이 형성되기 시작되던 시기로서 현대국어와는 다른 시제, 서법 체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어 잇-’의 형성으로 ‘-거-’는 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다.[4)]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 비해 생산성이 있었던 중세국어의 ‘-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거-’의 문법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거-’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바탕으로 우선 형태론적 문제, 즉 ‘-거-’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형태 ‘-어1-’, ‘-나-’, ‘-어2/아/야-’, ‘-가-’, ‘-과-’를 검토하여 ‘-거-’의 범위를 확정하고자 한다.[5)] 그리고 통합적 특성, 즉 ‘-거-’의 선어말어미 배열순위와 ‘-더-’와 ‘-ᄂᆞ-’와의 결합 특성

---

4) ‘-어 잇-’의 발달 과정과 ‘-거-’의 변화는 이승욱(1973)에서 논의되었다.
5) ‘-어1-’는 /ㄹ/과 추측법 선어말어미 ‘-리-’, 계사 ‘-이-’, ‘아니’ 등의 밑에서 /ㄱ/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거-’의 이형태를 지칭한다. 또 다른 ‘-어-’ 즉, 용언의 타동성 여부에 따라 선택되는 ‘-어-’는 ‘-어2-’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고찰을 통해 '-거-'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거-'는 시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서법 형태소로서 발화시 현재에서 화자가 사태를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확신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임을 보이겠다.

B. 선행 연구의 검토

'-거-'에 대한 논의에서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즉, '-어2-'와 '-거-'를 이형태로 보는가 아니면 별개의 형태소로 보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4) 가. 존ᄒᆞᇙ 길헤 잇거니 어느 구슬 ᄀᆞᄐᆞ리오 (두언 8:62)

나. 識이 ᄒᆞ마 드로ᄆᆞᆯ 니버니 뉘 識 드로ᄆᆞᆯ 알리오 (능엄 3:41)

(4가-나)는 각각 연결어미 「-니」에 연결된 '-거-', '-어2-'의 용례로 분포와 의미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2-'와 '-거-'의 교체조건이 분명하지 않아 '-거-'와 '-어2-'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두 방향으로 나누어 진다. '-거-'와 '-어2-'를 이형태라고 전제하고 '-거/어2-'의 기능을 설명하는 입장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별개의 형태소라고 전제하고 '-어2-'를 '-거-'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거-'의 기능에 대한 견해도 그리 단순하지 않다. 때매김에 관계된 다른 선어말어미와 마찬가지로 시제, 상, 서법으로 다양하게 설명 되었다. '-거-'와 '-어2-'를 이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을 나누어 '-거-'의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와 '-어2-'를 이형태로 인정하는 입장

유창돈(1963), 나진석(1971), 이승욱(1973), 허웅(1975), 고영근(1980)에서는 '-거-', '-어2-'를 동일 기능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승욱, 나진석, 허웅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동일 기능 아래 '-거/어2-'의 용례를 다루고 있다.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라는 주장은 유창돈(1963)에서 시작되었다. '-거-'와 '-어2-'가 어말어미와 연결되는 조건과 그 語義가 같음을 지적하여 두 형태가 대응 형태소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 '-어2-'의 쓰임은 화자의 임의에 따라 수의적으로 선택된다고 하여 교체조건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거-'와 '-어2-'의 교체조건 규명은 고영근(1980)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거-'는 비타동사에 의해 '-어2-'는 타동사에 의해 선택된다고 하였다.

'-거-'와 '-어2-'를 이형태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時制 및 相의 기능으로 보는 입장

안병희(1967), 이승욱(1973)은 '-거/어2-'를 [과거]라고 보는 입장이다.[6] 이승욱은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과거형으로 '-더-', '-엇-'과 더불어 '-거/어2-'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포상의 구성조건등을 검토하여 '-거-'와 '-더-'를 대립관계로 설명하였다.

나진석(1971)은 '-거-'를 「끝남」의 相을 표시하는 형태소로 파악하였다. 박병채(1989)에서도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나타나는데 시제라기 보다는 相의 성격이다"라고 하여 相의 기능, 즉 [완료]로의 기능을 인정하였

6) 안병희(1967:210), 이승욱(1973)은 '-거/어2-'를 과거시제 범주로 분류하면서 그 의미는 과거라기보다는 현재에 있어서 완료된 동작의 가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다.

김승곤(1975)은 국어는 시제 중심어인 것보다는 時相 중심어라고 하여 '-거/어2-'를 완료시상의 선어말어미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완료]의 기능은 그 쓰이는 경우에 따라 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가 된다고 하였다.[7]

② 서법으로 보는 견해

최태영(1965)에서는 '-거-'의 기능을 [가상]으로 보고 있다. '-거/어2-'는 본래 과거, 완료를 나타냈는데 그 기능이 전용되어 [가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고영근(1981)에서는 서법체계아래서 '-거-'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서법체계를 시제와 관련된 기본서법과 화자의 사태에 대한 양태적 태도 및 정감에 관련된 의미를 표시하는 부차서법으로 나누어 '-거-'의 기능을 부차서법의 하나인 확인법으로 설명하였다. '-거-'의 기능을 '화자가 사태를 결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거-'의 기능을 [강조]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경우도 화자의 태도와 관계된다고 보아 서법범주에서 다루고자 한다. 허웅(1955, 1963, 1975)은 '풀이의 힘을 더 한층 세게하고 다짐하는 씨끝'이라고 하여 [강조]로서 '-거/어2-'의 기능을 설명한다. 유창돈(1963)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거/어2-'는 강세의 선어말어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7) 김승곤(1975)은 '-거/어/나-'가 상황에 따라 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종결형에 쓰인 '-거/어/나-'의 용례는 주로 현재완료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형과 관형형에 쓰인 용례는 과거완료로 해석하고, 연결형에 쓰인 것 중 주절이 미래형으로 쓰인 경우는 미래완료의 용례로 제시하고 있다.

2) '-거-'와 '-어2-'의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

이숭녕(1961), 이인모(1968), 배희임(1974), 김종태(1985)에서는 '-거-'와 '-어2-'를 다른 기능을 하는 별개의 형태소로 설명한다.[8] '-어2-'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료]의 기능으로 공통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거-'에 대해서는 시제, 서법 등 다양하게 설명한다.

이숭녕(1961)에서는 '-거-'를 가상법이라는 서법의 체계에서 설명한다.[9] 종결형에서는 그 구실이 잘 나타나지 않으나 접속법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여 접속법에 나타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10] '-어2-'는 현재완료상으로 설명하였다.

이인모(1968)는 '-거-', '-어2-'의 기능을 시제로 파악한 경우이다. '-거-'는 현재에 연결되지 않는 [과거]를 표시한다고 하여 simple past로 '-어2-'는 화자의 현재에 연결된 과거 present past perfect aspect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거-'를 시제와 관련된 형태소로 인정하면서도 Mood에 따라 [가상]의 기능도 가짐을 보였다. 직설법에서는 [과거]를 가정법에서는 현재, 미래에 대한 [가상], 명령법에서는 [강세]로 기능한다고 하였다.[11] 이러한 Mood에 따른 기능변화로 설명한 것은 배희임(1974)에서도 마찬가지

---

8) 김종태(1985:208-209)는 '-거다', '-거니', '-건', '-으려'의 활용형과 같이 '-더-'와 계열관계로 형태소 확인이 가능한 '-거-'만을 '-어2-'와 구별하여 다른 범주(서법)의 형태소로 보고, 그외의 경우 '-거든/어든' '-거늘/어늘', '-거나/어나' 등에 나타나는 '-거-'와 '-어2-'는 이형태로 보았다.

9) 이숭녕(1961:239)에서 종결형의 敍法 체계를 직접법, 의도법, 명령법으로 나누고 의도법을 세분하여 가상법 '-거다'를 하위분류하였다.

10) '-거-'의 기능을 [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론은 유창돈, 임홍빈, 고영근에 의해 이루어 졌다. 임홍빈(1976)은 [가상][조건]은 '-거-' 자체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주절에 대한 종속절 전체의 의미관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고영근(1981)은 [가상]이란 연결어미 자체나 '-리-'와의 통합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11) 이인모(1968)는 '-거-'와 '-어2-'의 기능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설법에서만 그 기능의 차이를 제시하고 가정법과 명령법에서는 그 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다.[12)]

김종태(1985)는 '-어2-'를 시상범주로 분류하여 [완료]로 설명하고, '-거-'는 서법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불변의 진리, 기정사실, 현재 또는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 미래에 수행될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인정, 확인 등의 판단태도를 '-거-'가 나타낸다고 하였다.

鹽田今日子(1993)는 '-거늘', '-어늘'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거-'와 '-어-'가 서로 다른 Aspect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거늘'은 용언이 의미하는 내용을 지속적인 상황으로 보고, '-어늘'은 용언이 의미하는 동작을 끝낸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 相的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거-', '-어2-'에 대한 先行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거-'와 '-어2-'를 이형태로 보는 입장

견 해	설 명	'-거-'와 '-어2-'의 교체조건
유창돈(1963)	강세	
안병희(1967)	과거(현재에 있어 완료된 동작의 가상)	
최태영(1965)	가상 ← 과거, 완료	
이숭욱(1967)	과거, 완료	
나진석(1971)	끝남상	
허 웅(1975)	강조	
(1991)	강조, 확정(때매김)	
김석득(1975)	완료	
고영근(1981)	확인	'-거-'는 비타동사에 '-어2-'는 타동사에 의해 선택된다.

12) 배희임(1974)은 '-거-'의 일차적 의미를 [과거] 이차적 의미를 [가상]으로 보아 mood에 따라 설명하였다.

'-거-'와 '-어2-'의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

견 해	'-어2-'	'-거-'
이숭녕(1961)	완료	가상
이인모(1968)	현재에 연결된 과거 (서법에 따라 과거, 가상, 강조로 기능)	단순과거 (서법에 따라 과거, 가상, 강조로 기능)
배희임(1974)	현재에 연결된 과거	단순과거
김종태(1985)	완료(시상범주)	인정, 확인(서법범주)
차재은(1992)	완료	완료, 상태지속 → 확인

C. 인용자료

본 논문에서 인용한 중세국어의 자료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

龍飛御天歌 (용)
釋譜詳節 (석보)
月印千江之曲 (월곡)
月印釋譜 (월석)
楞嚴經 諺解 (능엄)
妙法蓮花經 諺解 (법화)
金剛經 諺解 (금강)
禪宗永嘉集 諺解 (영가)
飜譯 老乞大 (노걸)
杜詩諺解 (두언)

II. '-거-'의 형태론적 식별

'-거-'의 문법적 의미를 밝히는 데는 그 형태론적 검토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 이유는 '-거-'와 관련되는 형태가 일관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2-'는 '-거-'의 이형태로서 가능성을 가지는 형태인데 다른 범주의 형태소로 설명되기도 한다.[13] 그리고 '-과-'는 '-거-'의 일인칭 대응형태로 설명되기도 하고 '-니-'의 일인칭 대응형태로 설명되기도 한다.[14]

본장에서는 '-거-'와 관련된 모든 형태들을 검토하여 '-거-'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우선 '-거-'의 이형태 '-어1-'와 '-나-'에 대해서 살피고, '-거-'와 동일한 분포에 나타나는 또 다른 '-어2-'와의 관계를 논의하겠다. '-거-'와 '-어2-'의 분포, 기능상의 공통성을 근거하여 이형태로서 가능성을 밝히겠다. 그리고 '-거-'의 일인칭 대응형으로 알려진 '-가-'와 '-과-'를 검토하여 '-거-'와의 관련성을 논의하겠다.

A. '-거-'와 '-어1-', '-나-'

'-거-'는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선택되는 이형태 '-어1-'과 '-나-'를 갖는다. '-어1-'은 /ㄹ/과 추측법 선어말어미 '-리-', 계사 그리고 '아니' 밑에서 /ㄱ/이 탈락된 '-거-'의 이형태이고,[15] '-나-'는 용언 '오-'에 의

---

13) 이숭녕(1961)은 '-거-'는 가상으로 '-어2-'는 과거시제, 완료상으로 설명하였다. 김종태(1985)에서는 '-거-'는 서법범주로, '-어2-'는 시상범주로 분류한다.

14) 고영근(1981:35)은 '-과/와-'를 '-거-'에 관련하여 '-거/어-'에 선어말어미 '-오-'가 붙은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허웅(1975:887)에서는 '-니-'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15) '-어1-'을 'ㄹ'와 [i]모음계 아래에서 /ㄱ/이 탈락된 '-거-'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이 규칙적이지 못하여 문제가 된다. "오시거나(석보24:6)"와 같이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에 쓰인 경우 /ㄱ/이 탈락되지 않는다. 본고는 추측법 선어말어미 '-리-', 계사, '아니' 등의 아래에서 교체되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보

해 선택되는 이형태이다.

(1) 제 오니 내 願에 甚히 맛거다(월석 13:15)

(2) 가. 바미 ᄒᆞ마 半이어다 (석보 23:13)

나. 이 法華經은 無量國中에 일훔도 시러 듣디 몯ᄒᆞ며 니를어니 (법화 5: 56)

(1)은 본고에서 대표형으로 삼은 '-거-'의 용례이다. (2)는 '-거-'와 형태론적인 조건에서 교체되는 이형태 '-어1-'가 나타나는 예문이다.[16] (2가)는 계사 '-이-'아래서 /ㄱ/이 탈락된 경우이고, (2나)는 /ㄹ/아래서 /ㄱ/이 탈락된 용례이다.[17]

(3) 가. 이제 또 너를 여희오 더욱 우니노니 어셔 도라 니거라 (월석 8:101)

나. 香이 몯 믈랫거든 도로 오나라 (석보 9:28)

(4) 가. 그ᄢᅴ 비 업거늘 얼우시고 또 노기시니 (용 20)

나. ᄆᆞ리 사ᄅᆞᆷ 마자 馬廐에 드러 오나ᄂᆞᆯ 聖宗ᄋᆞᆯ 뫼셔 九泉에 가려 ᄒᆞ시니 (용 109)

(3)은 명령형에 '-거-'와 '-나-'가 쓰인 용례이고, (4)는 연결어미 '-늘

고자 한다.

16) '-어1-'은 최태영(1965)등에서 「ㄹ」「ㅣ」아래라는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해 교체되는 '-거-'의 이형태로 다루어 졌다. 그러나 'ㄱ'과 'ㅇ'의 교체는 고영근(1993:107-108)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음운론적인 조건 'ㄹ'과 반모음 'y'에 국한하기에는 예외가 많고 계사, 추측법 '-리-', '아니' 뒤에서 교체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교체 조건을 형태론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ㄱ'과 'ㅇ'의 교체는 안병희(1958)에서 형태론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바 있다.

17) 허웅(1975:932)에서 '-어1-'의 교체조건을 " /ㄹ/과 딴이, 안맺음씨끝 「-으리-」, 잡음씨의 「-이-」, 「아니-」밑에서는 /ㄱ/이 줄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눌'에 '-거-'와 '-나-'가 쓰인 용례이다. 의미에 차이가 없고 용언의 선택에만 차이가 있다. '-나-'는 '-거-'의 이형태로서 그 교체조건은 선행용언이 「오다」일 때이다. [18]

(5) 가. 오늘 寶藏이 自然히 오나다 (월석 13:32)
   나. 오늘 이 寶藏이 自然히 니를어다 (법화 2:226)

(6) 아들 봄브터 오난디 ᄒᆞ마 스믈 ᄒᆡ니 (自見子來컨디 已二十年이니) (법화 2:245)

(5가)는 용언 「오-」에 '-나-'가 쓰였다. (5가)와 (5나)는 같은 내용인데 그 표현에 있어 「오다」와 「니를다」라는 용언의 선택에만 차이가 있다. (6)은 관형형에 쓰인 용례로 '來컨 디'를 '오난 디'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와 기능의 동일함을 근거로 볼 때 '-나-'는 용언 「오다」에 의해 선택되는 '-거-'의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다.

B. '-거-'와 '-어2-'

예(2)에서 보인 '-거-'의 이형태 '-어1-'과는 다른 또 하나의 '-어-'형이 있어 주목을 끈다. 이 두 형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형태이다. '-거-'에서 /ㄱ/이 탈락된 음운 변이형인 '-어1-'은 (2나)에서와 같이 분철되어 쓰이는 반면 '-어2-'는 연철되어 쓰인다.

(7) 境을 開拓ᄒᆞ샤 셤 안해 도ᄌᆞᆨ 니저니 (용 53)

(8) 가. 如來ㅅ 舍利ᄂᆞᆫ 몯 나소리어다 (석보 23:54)

---

18) 허웅(1975:932), 고영근(1980) 참고

나. 여흰 後에 엇던 사르몰 보려니오 (두언 8:62)

(7)은 연철표기된 '-어2-'의 형태이다. '-리-'와의 통합에서도 두 형태는 차이가 있다. (8가)에서 '-어1-'은 '-리어-'의 형태로 표기되고, '-어2-'와 '-리-'의 통합은 (8나)와 같이 '-려-'로 축약되어 표기된다.[19]

(9) 가. 山中에 가 道理 닷가라 (월석 23:77)

나. 네 願다히 호야라 (석보 24:14)

(9)는 '-어2-'의 이형태로서 (9가)는 선행용언이 양성 모음일때 선택되는 음운론적 이형태 '-아-'이고[20] (9나)는 선행용언이 「ᄒᆞ-」일때 '-야-'가 선택되는 용례로 '-어2-'의 형태론적 이형태이다.[21]

'-거-'와 '-어2-'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두 형태의 분포와 의미가 거의 같지만 그 교체조건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 두 형태를 동질의 형태소 보는 경우 그 교체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며, 별개의 형태소로 보는 경우 두 형태소가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변별되는가를 밝혀야 한다.

'-거-'와 '-어2-'의 의미 차이는 실제 문맥에서 구하기 어렵고, '-거-'와 '-어2-'를 별개의 이형태소 인정할 경우 '-거-'와 '-어2-'의 분포상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진다.[22]

---

19) 허웅(1975:926) 참고

20) 이숭녕(1961:307) 참고

21) 고영근(1980)에서 '-야-'는 'ᄒᆞ-'와 통합될 때 실현되는 '-어-'의 형태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라고 하였다.

22) 이숭욱(1967:37)에서
"모든 놀람과 저흠 업거지이다(無諸驚懼ᄒᆞ야지이다)(영가 下 140)"의 예문에서 '-거-'와 '-어-'가 구분없이 쓰임을 들어 무대립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0) 가. 罪福ᄋᆞᆯ <u>저히숩거든</u> 이 ᄠᅳ들 닛디 마ᄅᆞ쇼셔 (용 124)

나. 一切 됴ᄒᆞᆫ 거스로 如來ᄭᅴ 布施<u>ᄒᆞᅀᆞ바ᄃᆞᆫ</u> 어듸 두리잇고 (석보 23:3)

(11) 가. 石壁이 ᄒᆞᆫ잣 ᄉᆞ싄ᄃᆞᆯ 數萬里ㅿ <u>니미어시니</u> (용 31)

나. 하ᄂᆞᆯ히 <u>일워시니</u> 赤脚仙人 아닌ᄃᆞᆯ 天下蒼生ᄋᆞᆯ 니ᄌᆞ시리잇가 (용 21)

(10-11)은 연결어미에 쓰인 '-거-'와 '-어2-'의 용례이다. (10)은 연결어미 '-든/ᄃᆞᆫ'과 결합된 '-거-', '-어2-'인데 그 분포가 동일하다.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숩-'에 후행하여 쓰이고 있다. (11)은 연결어미 '-니'에 쓰인 '-거-', '-어2-'의 용례인데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거-', '-어2-'와 연결어미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선어말어미와의 배열순위나 연결어미와의 연결에 있어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거-'와 '-어2-'는 동일한 형태소로 파악된다. '-거-'와 '-어2-'를 다른 기능으로 보는 논의에서도 연결어미에서 보이는 이러한 동일한 분포와 의미는 인정하고 있다. '-어2-'와 '-거-'를 변이형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는 그 동일성을 인정하게 되면 '-거-'와 '-어2-'는 상황에 따라 동일기능과 다른기능으로 이분해서 설명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23]

분포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실제 용례에서 '-거-'와 '-어2-'의 기능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3) 김종태(1985)는 '-어-', '-어니', '-언', '-어리-', '-거-', '-거니', '-건', '-으려-'의 어형에서는 '-거-'와 '-어2-'를 각각 시상과 서법범주로 분류하고, 그외의 어형은 서로 같은 형태소의 변이형태라는 관계에 놓여 있고 애초부터 의미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연결어미와 완전히 유착되어 형태소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서 '-거-'와 '-어2-'를 변이형태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거든'의 경우는 '-더든'과의 비교가 가능하고, '-거시든'의 용례가 있어 형태소 확인의 가능성이 있다.

(12) 그저긔 十方 無數 萬億 恒河沙 녀븐 부텻 世界 다 ᄀᆞ장 드러치며 갓갓 소리롤 내야 닐오ᄃᆡ 셜블써 世界 뷔어다 ᄒᆞ며 . . . 諸山이 일시예 드러쳐 뻐디고 다 므르드르며 큰 소리롤 내야 닐오ᄃᆡ 셜블써 世間에 慧日이 업스샤 울워ᅀᆞᄫᆞ리 업거시다 ᄒᆞ며 ...갓갓 소리롤 내야 닐오ᄃᆡ 셜블써 衆生이 正ᄒᆞᆫ 길ᄒᆞᆯ 일허다 ᄒᆞ며 (석상 23:18-9)

예문(12)는 세존이 열반에 든 후 세계가 모두 슬퍼하는 비슷한 내용이 대구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뷔어다', '업거시다'의 '-거-'와 '일허다'의 '-어2-'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 -어2-'의 기능을 敍法범주에서 설명하거나 時相범주에서 설명하거나 (12)는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보는 화자의 말이므로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형태소로 '-거-'와 '-어2-'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

'-거-'와 '-어2-'를 다른 기능의 형태소로 보는 입장에서는, '-거-'는 서법범주로 '-어2-'는 과거나 완료의 時相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4]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선행용언의 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고영근(1980)은 '-거-'와 '-어2-'의 교체조건을 선행용언의 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거-'는 자동사, 지정사, 존재사에 '-어2-'는 타동사에 의해 선택된다고 하였다.[25] 예외가 많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가 형용사, 지정사, 존재사와 결합하는 용례가 현저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타동사에 주로 쓰이는 '-어2-'는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태성]의 상적특성을 가지는 용언과 결합이 많고,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과 쓰인 '-어2-'는 과거나 완료로 해석된다.

---

24) 이숭녕(1961), 김종태(1985)참고
25) 고영근(1980) 참고

(13) 가. 오늘 世尊 알핑 몬 듣줍더닐 듣줍고 다 疑惑에 뻐러디거이다 법화 2:61)[26]

나. 나라히 威神을 입혀다 (월석 10:9)[27]

(14) 아드돌히 아비 죽다 듣고 (월석 17:21)

(13가)는 [-상태성]의 상적특성을 가지는 자동사 「떨어지다」에 '-거-'가 쓰인 것으로 「떨어졌다」로 해석된다. (13나)는 완료로 해석된다고 알려진 '-어2-'의 용례이다. (13가)와 (13나)는 相에 대해 해석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선어말어미도 나타나지 않은 (14)와도 相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어2-'뿐만 아니라 '-거-', '-ø-'도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경우 완료로 해석되므로 '-어2-'의 기능을 [완료]라고 하여 '-거-'와 구별하여 상범주에서 분류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거-'와 '-어2-'의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두 형태를 이형태로 전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두 형태가 선택되는 조건은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기능의 형태소로 간주할 경우 그 분포의 동일함과 기능 차이를 밝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C. '-거-'와 '-과-', '-가-'

위에서 살펴본 이형태들외에 '-가-', '-과-'가 문제가 되는데 이 형태들은 선어말어미 '-거-'의 일인칭 대응형태로 알려져 있다.

(15) 가. 내 仁義禮智信을 아라 行호가니 (금강경 20:1)

나. 내 命 그추미사 므더니 너기가니와 (월석 10:4)

26) 나진석(1971:258) 재인용
27) 고영근(1981:108) 재인용

(15)는 '-가-'가 연결어미에 쓰인 용례로 일인칭 단수 「나」가 주어인 문장에 쓰였다. '-가-'를 단순히 '-거-'의 음운론적 이형태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28] 그러나 음운론적 조건으로 설명하기에는 예외가 많으며, '-거-'와 분포상 구성조건이 같은 '-더-'의 일인칭 대응형 '-다-'와 비교할 때 '-가-'는 '-오-'와 '-거-'의 통합형으로 생각된다.[29]

'-가-'가 연결형에 나타나는 형태임에 비해 종결형에 나타나는 '-과-'가 있다.[30]

(16) 가. 우리 오늘 이 구즌 길훌 免ᄒᆞ야 훤히 便安호ᄆᆞᆯ 得과라 (월석 14:77)

나. 내 녜 아릭 供養ᄒᆞᅀᆞᆸ고 오늘 ᄯᅩ 도로 親히 뵈ᅀᆞᆸ과이다 (법화 6:149)

(17) 가. 正ᄒᆞᆫ 사ᄅᆞ미 ᄠᅳ든 긴 긴훌 눕요ᄆᆞᆯ 苟且히 아니호ᄆᆞᆯ 알와라 (두언 25: 34)

나. 내 이제 ᄉᆞ랑호니 ᄒᆞᆫ 고대 잇논ᄃᆞᆯ 알와이다 (능엄 1:56)

(16-17)은 '-과/와-'가 쓰인 용례로 일인칭 복수 「우리」와 일인칭 단수 「나」가 주어인 문장에 쓰인 용례이다. 이숭녕(1961), 전재호(1968)에서는 '-과라/와라'를 '-고 + 아라', '-오 + 아라'로 분석하고 있다.[31] 접속형

---

28) 최태영(1965:48-49) 참고.
29) 허웅(1975:941)에서 '-가-'를 '-거-'의 일인칭 대응의 변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30) 고영근(1981)에서 연결어미에서의 '-과-'를 고려하면 '*-과니'가 기대되나 이런 형태는 實在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니'로 보충형을 삼았다.
31) 이숭녕(1961:253)에서 감상법 '-와라', '-과라'는 현재 화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의 서법으로, 분석하면 '-오 + 아라', '-고 + 아라'로 뚜렷한 현재완료상이 된다고 하였다. 'ᄒᆞ고'도 相을 따지면 현재완료상이므로 여기 '아라'가 연결되어 현재 완료상이 된다고 하였다.

'-고/오'에 '-어라'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접속형어미에 '-어라'라는 어말어미가 결합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없다. 특히 (16나)의 '과이다'와 (17나)의 '와이다'형에서의 분석은 '-고 + 아 + 이 + 다', '-오 + 아 + 이 + 다'로 접속형어미에 선어말어미가 연결된 정상적이지 못한 형태이다. 분포상 '-과/와-'는 선어말어미의 위치이므로 다른 분석이 요구된다.

선어말어미로서 '-과/와-'에 대한 논의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 졌다. 허웅(1975)에서는 과거의 때매김에 관계된 확정법 선어말어미 '-니-'와 관련지어 '-니-'의 일인칭 대응형으로 보았다. 반면에 고영근(1981)에서는 '-거-'의 일인칭 대응형으로 보았다.[32] 그 근거를 音相上 '-과라'가 '-니라'보다는 '-거다'와 더 유사하다는 점에 두었다.[33]

'-과-'의 형태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찰이 있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과-'를 '-거-'의 일인칭 대응형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

32) 고영근(1981:34-35)참고

33) 차윤정은 '-과-'의 분포를 근거로 '-니-'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차윤정(1989:29-30)에서는 '-니-'가 일인칭 주어문에 나타나며, 영탄법 선어말어미 '-소-'와 통합될 때 '-니-'와 '-과-'가 분포위치를 달리함을 보아서, '-니-'와 '-과-'가 단순히 일인칭에 의해서 대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용례를 제시하였다.

(1) 아들 업ᄉᆞ뭘 免과소라 (두언 21:31)

(2) 趙州ㅅ 뜨든 그러ᄒᆞ도소니야 아니ᄒᆞ도소니야

(1)에서 '-과-'는 '-소-'앞에 분포하지만 (2)에서 '-니-'는 '-소-' 뒤에 분포하여 '-과-'와 '-니-'는 분포가 다르다고 하였다. (1)의 '과소라'는 안병희(1965:216), 고영근(1981:41-42)에서 '-거- + -옷- + -오-'로 분석된 것이지만 영탄법에 대한 형태소의 분석방법이 다른 허웅에서는 '-과- + -소-'로 분석된다. 그리고 '-니-' 또한 고영근(1981)에서는 의문법에 나타나는 '-니-'와 둘째설명법어미를 원칙법 '-니-'와 구별하고 있지만 허웅(1975)에서는 '-니-'를 모두 동일의 형태소로 설명하고 있다. '-니-'와 '-과-'의 관련하여 설명하는 허웅의 분석방법을 근거로 했을 때, '-과-'와 '-니-'의 분포가 다르다는 설명은 타당성을 가지며 '-과-'를 '-니-'의 일인칭 대응형으로 다루는 것은 모순되는 설명으로 생각된다.

Ⅲ. '-거-'의 통합적 특성

형태소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그 분포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어말어미와 같은 비자립 형태소의 경우는 용언과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에 의존하여 그 기능이 발휘된다. '-거-' 역시 그 기능은 환경에 의존해서 발휘되므로 '-거-'의 기능을 명확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환경과 후행환경의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한다.

본장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선어말어미 '-거-'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사용되었는가를 통해 그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선행환경, 즉 용언의 相的 특성과의 관계를 통해 '-거-'의 문법적 기능이 時制와 相과는 직접관련이 없고 화자의 태도에 관계된 것임을 밝히겠다.[34] 그리고 다른 선어말어미와의 관계를 통해 '-거-'의 기능은 더욱 분명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15세기는 '-어 잇->-엇-'이 형성되던 시기로서 현대국어와는 다른 선어말어미 체계를 이룬다.[35] 특히 '-어 잇-'의 형성과 관련하여 '-더-'와 '-거-'는 선어말어미 배열 순위에 혼동을 보이고 있어 그 기능의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선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고정된 서열을 가지며, 서로 결합이 자유로운 것이 있는가하면 배타적인 것이 있다. '-거-'가 다른 선어말어미과 결합될 때 나타나는 배열순위의 변화와 결합 제약은 '-어 잇-' 형성에 따른 '-거-'의 기능의 변화를 반영한다.

'-거-'의 선어말어미 배열순위와 결합특성을 고찰하여 '-거-'가 시상범

34) 용언의 相的 특성에 따른 용언의 분류는 油谷幸利(1978), 정문수(1984), 이필영(1989)을 참고.
35) 박병채(1989:193)은 시제 형태소의 교체가 고대국어에서 현재형 '-ᄂᆞ-'가 출현하였고, 중기국어에서 '-엇-'이 형성되었고, 근대국어에 가서 미래형 '-겟-'이 만들어짐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하였다.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시제비교는 김차균(1987), 정영숙(1986)에서 논의되었다.

주에서 서법범주로 고정되는 과정임을 보이고, '-거-'에 내재된 의미자질(화자의 사태에 대한 단정적, 확신적, 확인의 태도)이 선어말어미들과의 관계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검토하겠다.

또한 어말어미 형태에 따라 '-거-'의 기본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논의하겠다.

A. '-거-'와 용언의 相的 특성과의 관계

선어말어미 '-거-'는 [과거], [완료]의 時相범주와 [확인], [강조]의 서법범주에서 설명되고 있다. 시상범주로 '-거-'를 설명하는 안병희(1976), 이숭욱(1973)에서는 '-더-'와 더불어 '-거-'를 과거시제의 형태소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형용사에 쓰인 '-거-'는 과거나 완료로 해석이 불가능하다.[36] 과거와 완료의 기능은 '-거-'가 쓰인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病은 ᄒᆞ마 업거니와 옷과 法과는 ᄒᆞ마 南의 니거다 (육조 59)

(2) 가. 시르미 더욱 깁거다 (월석 8:101)

나. 문득 書來를 바드니 마지 분별 업거다 (泳嘉 하 107)

다. 아돌와 여희연디 쉬나믄 히어다 (월석 13:9)

(1-2)는 '-거-'가 쓰인 용례로 (1)과 (2)는 각각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로 해석된다. (1)은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 「니다」에 '-거-'가 쓰인 용례로서 사건시는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시제로 「이미 남방에 갔다」로

36) 나진석(1971:274)에서 "그림씨나 잡음씨에 쓰인 {-거-}는 「끝남상」은 물론 될 수 없지마는 「때의 지난적」을 나타내는 일도 없다" 고 하였다.

해석이 된다. (2)는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용례로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1)의 용례와는 시제에 있어 차이가 있다. (2가)는 형용사, (2나)는 이른바 존재사, (2다)는 서술격 조사에 '-거-'가 쓰인 것으로 모두 발화시 현재의 상태로 현재시제이다. 이와 같이 '-거-'가 어떤 용언에 쓰였느냐에 따라 시제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거-'가 시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형태임을 추정하게 한다.[37]

용언의 相的 특성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거-'의 기능을 時相범주가 아닌 서법범주에서 설명한 연구가 고영근(1981)에 의해 이루어 졌다. 고영근(1981:10)은 특정한 형태소의 개입됨이 없이 용언의 동작류에 따라 시제가 결정되는 것을 부정법이라고 하여 그동안 '-거-'의 기능으로 설명되던 과거, 완료의 의미가 '-거-'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정법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는 時制와 相에 직접 관련이 없는 確認法 형태소로서 화자가 주관적 경험에 의지하여 사태를 확정적으로 파악할 때 선택된다고 하였다.

'-거-'가 쓰인 용례와 쓰이지 않은 용례의 비교는 '-거-'의 의미를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본고에서는 '-거-'의 의미규명을 위해서 부정법과의 비교를 하겠다.

(3) 가. 善宿 ㅣ 나ᅀᅡ가 닐오ᄃᆡ 究羅帝여 네 命終ᄒᆞᆫ다 주거미 닐오ᄃᆡ
내 ᄒᆞ마 命終호라 (월석 9:36)

나. 너도 ᄯᅩ 이 ᄀᆞᆮᄒᆞ다 (능엄 2:23)

---

37) 허웅(1975:923-944)에서는 '-거/어-'를 강조법에서 설명하였다. 그후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1991)에서는 (1)의 용례에서와 같이 움직씨의 서술법 「-다」에 쓰인 '-거/어-'는 때매김과 관계된다고 보아 과거시제와 관련된 확정법에서 다루고 그외의 경우는 강조법에서 설명하였다. 즉 '-거-'가 [-상태성]용언과 쓰인경우에 대해 과거시제의 해석을 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따른 기능의 설명은 결국 '-거-' 자체의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움직씨 + 거 + 다」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 婢 ᄒᆞᆫ 아ᄃᆞᄅᆞᆯ 나ᄒᆞ니 사ᄋᆞᆯ 몯 차셔 말ᄒᆞ며 (월석 21:55)

나. 王이 네 아ᄃᆞᄅᆞᆯ 내티쇼셔 王이 니ᄅᆞ샤ᄃᆡ 네 아ᄃᆞ리 孝道ᄒᆞ고 허믈 업스니 어드리 내티료 (월석 2:6)

(5) 가. 天女 도와 合掌ᄒᆞ며 十方앳 一切佛이 빗보ᄀᆞ로 放光ᄒᆞ샤미 東山애 비취더시니 즉자히 각시 ᄇᆞ리샤 이런 긔벼를 王ᄭᅴ 솔바시ᄂᆞᆯ 王이 깃그샤 無憂樹 미틔 가시니라 (월석 2:29)

나. 長者ㅣ 듣고 세흘 ᄃᆞ려 드려오라 ᄒᆞ야 ᄡᆞᆯ헤 안치숩고 묻ᄌᆞᄫᆞᄃᆡ 이 ᄯᆞ리 너희 죵가 王과 比丘ᄭᅴ 대답ᄒᆞ샤ᄃᆡ 眞實로 우리 죵이니이다 (월석 8:94)

(3-4)는 시제관련의 선어말어미가 쓰이지 않은 것으로 (3)은 평서형어미의 용례이고 (4)는 연결어미의 용례이다. (3가)는 善宿과 究羅帝의 대화로 究羅帝가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다. 「죽다」라는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진 용언에 쓰임으로 사건시는 발화시를 앞서고 있다. (4가) 역시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 「낳다」의 쓰임으로 과거, 완료로 「한 아들을 낳았는데」의 해석이 된다. (3나)는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의 쓰임으로 발화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사실로 현재시제라 할 수 있다. (4나)역시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의 쓰임으로 발화시 현재 「아들이 허물이 없다」라는 상태에 대한 언급이다.

(5)는 규정법 선어말어미 '-니-'가 쓰인 용례로서 역시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서는 과거시제로,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서는 현재시제로 해석된다.[38] (5가)는 [-상태성]의 상적특성을 가지

38) 선어말어미 '-니-'에 대한 분류는 이숭녕(1961)을 따른다. 고영근(1981)에서는 원칙법 선어말어미 '-니-'와 둘째설명법어미 '-니라'를 구분하고 있다. 예문 (5)는 고영근 (1981)을 따르자면 둘째 설명법어미로 분류되지만 시제와 관계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설명이다. '-거-'의 논의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원칙법과 둘째설명법어미의 구별은 하지 않고 규정법으로 설명하는 이숭녕의 논의를 따른다.

는 용언 「가다」의 용례로 「王이 기뻐 無憂樹에 가셨다」의 해석이다. (5나)는 長者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진실로 우리의 종입니다」의 뜻으로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서 현재 상태의 사실로 현재시제라고 할 수 있다.

시제형태소가 쓰이지 않은 동일한 부정법의 용례이지만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이 쓰인 (3가)(4가)(5가)는 과거시제로,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이 쓰인 (3나)(4나)(5나)는 현재시제로 용언에 따라 시제 해석에 차이가 보임을 살펴보았다.39)

'-거-'가 쓰인 용례와 쓰이지 않은 용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 가. 世尊이 ... 내 이제 너를 罰ᄒᆞ야 涅槃 몯게 ᄒᆞ노니 世間애 샹녜 이셔 내 正法을 護持ᄒᆞ라 ᄒᆞ시이다 (석보 24:45)

나. 오ᄂᆞᆯ 世尊ㅅ 알ᄑᆡ 몯 듣ᄌᆞᆸ더닐 듣ᄌᆞᆸ고 다 疑惑애 떠러디거이다 (법화 2:50-1)

(7) 가. 내 오ᄂᆞᆯ 實로 無情호라 (월석 21:219)

나. 오ᄂᆞᆯ 尊者 보ᅀᆞᄫᆞ니 깃부미 그지 업서이다 ᄒᆞ고 尊者ᄅᆞᆯ 請ᄒᆞ야 (석보 24:34)

(6)은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이 쓰인 것이고 (7)은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이 쓰인 용례이다. (6가)는 王이 尊者에게 世尊을 보셨냐고 묻자 이에 대답하는 장면으로 「世尊이 ... "... 내 正法을 護持하라"고 하셨습니다」로 해석된다. 부정법으로 과거시제이다. (6나)는

---

39) 김차균(1987)은 '-Ø-'는 비과정상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다 (농업 2:8) /보 + Ø + 은 + 다 / <보았느냐>
고진가 (석보 11:32) / 곶 + 이 + Ø + 은가 / <꽃인가>

'-거-'가 쓰인 것이다. 역시 「의혹에 떨어졌습니다」로 해석되어 과거시제이다. (6가)와 (6나)를 비교해 보면 용언의 상적 특성에 의해 시제가 결정되고, '-거-'의 쓰임은 화자의 양태, 정감등의 태도에 의해 선택되는 형태소일 가능성을 찾는다. (7)은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으로 현재 상태의 시간성을 갖는다. (7가)는 부정법으로 현재 상태이고, (7나)는 '-거-'가 쓰인 것으로 역시 현재 상태이다. (7가)와 (7나)는 時制와 相에서 전혀 그 차이를 볼 수 없다.

(8) 가. 녀느 쉰 아히도 <u>出家ᄒᆞ니라</u> (석보 6:10)

나. 녯 위안해 고지 절로 펫고 봄나래 새 도로 <u>놀어니라</u> (두언 8:34)

(9) 가. 부텨 難陀 더브르시고 阿波那山애 가샤 무르샤ᄃᆡ 네 겨지비 고ᄫᆞ니여 對答ᄒᆞᅀᆞᄫᆞᄃᆡ <u>고ᄫᆞ니이다</u> (월석 7:10)

나. 故國에 믈근 渭水ㅣ 흐르ᄂᆞ니 이제 고지 正히 <u>하거니라</u> (두언 15:31)

(8-9)는 규정법 '-니-'의 쓰임으로 (8가)와 (8나), (9가)와 (9나)는 '-거-'의 有無로 대립된다. (8)은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이 쓰인 용례로 (8가)는 「다른 쉬흔 아이도 出家했다」로 (8나)는 「새 다시 날았다」로 '-거-'의 쓰임과는 관계 없이 모두 완료로 해석된다. (9)는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이 쓰인 용례로 (9가)는 「곱습니다」로 (9나)는 「이제 꽃이 많다」로 현재 상태로 해석된다. 역시 용언의 相的 특성에 의해 時制가 결정되고 있고 '-거-'의 유무는 화자의 태도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10) 가. 世尊이 니르샤딕 잘 오도다 羅卜아 (월석 23:76)[40]

나. 네 地藏 威神力을 보니 恒河沙劫에 다 닐우미 어렵도다 (월석 21:172)

(10)은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가 쓰인 용례로 역시 결합된 용언의 상적특성에 따라 時相이 파악된다.[41] '-거-'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서는 과거, 완료로,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서는 현재로 해석된다. (6가)는 「나복아 잘 왔구나」의 뜻으로 완료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거-'가 쓰인 용례와 마찬가지이다. '-거-'가 쓰인 용례가 완료상으로 해석되는 것은 '-도-'와 마찬가지로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서 비롯된 것이지 '-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거-'의 기능이 '-거-'가 쓰이지 않은 용례들과 비교해 볼 때 時相에 관계된 것이 아님을 보았다. '-거-'가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과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것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가. 勞度差ㅣ 또 호 龍울 지스니 머리 열히러니... 舍利弗이 호 金翅鳥룰 지서내니 그 龍울 자바쯔저 머거늘 모다 닐오딕 舍利弗이 이긔여다 勞度差ㅣ 또 호 쇼룰 지서내니 ... 舍利弗이 호 獅子ㅣ룰 지서내니 그 쇼룰 자바 머그니 모다 닐오딕

40) 고영근(1987:252)에서 완료상으로 해석되는 不定感動法의 용례로 제시한 것이다. 완료상은 부차서법의 부정법에서도 확인된다고 하여 不定確認法에 해당하는 용례 '오늘 이 寶藏이 自然히 니를어다 (법화 2:226)'와 비교하였다. 감동법과 확인법은 완료상과는 직접관계가 없고 ([-상태성]용언 + ∅ + 다)에 의해 완료상이 해석됨을 보인 것이다.

41) 감동법에 대한 논의는 고영근(1981)을 따른다.

舍利弗이 이긔여다 (석보 6:32)

나. 淨飯王이... 命終커시놀 諸釋돌히 슬허 짜홀 두드리며 닐오딕 王ㅅ 中엣 尊호신 王이 업스시니 나라히 威神을 일허다 호고 (월석 10:9)

다. 舍利弗이 부텨긔 술오딕 ...이 無學에 빅호는 사룹도 또 各各 제 我見 또 有無見 돌홀 호마 여희오 涅槃을 득호라터니 오눌 世尊ㅅ 알핑 몯 듣줍더닐 듣줍고 다 疑惑에 떠러디거이다 (법화 2:50-1)

(12) 호마 當時옛 法을 쓰거니 뉘 이 뜨들 디녀셔 베프리오 (두언 16:7)

(11-12)는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거/어-'의 용례이다. (11가) 勞度差와 舍利弗의 계속되는 대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로서 '勞度差가 만든 龍을 舍利弗이 만든 金翅鳥가 잡아 먹었다'는 객관적 사태를 근거로 화자는 舍利弗의 승리로 판정을 내려 단정한다.[42] (11나)는 淨槃王이 命終하자 諸釋들이 하는 말이다. 이 경우 역시 淨飯王의 命終이란 객관적인 사태를 근거로 이제 나라가 威嚴과 神奇를 잃는다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 (11다)는 세존의 설법을 듣고 사람들이 다 의혹에 떨어졌음을 말하는 상황이다. 역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태를 근거로 화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한 상황을 확신있게 말하는 화자의 태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2)는 연결형에 쓰인 '-거-'의 용례이다. 「이미 당시의 법을 썼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뒤따르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42) 최태영(1965)에서는 현대어로 '이겼다'로 해석하기보다는 두 사실을 비교해서 승부를 가리는 것으로 '이긴 것이다'로 화자의 주관적 관념표시의 서술로 본다고 하여 [가상]의 의미기능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거-'의 용례 (11-12)는 과거시제, 현재완료상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과거, 완료로의 해석은 '-거-'가 쓰이지 않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용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발화시 현재 관련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거-'가 발화시 현재 드러난 객관적 사태를 근거로 상황을 단정하는 데서 오는 부차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43]

다음은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거-'가 쓰인 용례로 물론 과거시제와 완료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3) 가. 쇼칠 아ᄒᆡ 놀애ᄅᆞᆯ 블로ᄃᆡ 安樂國이ᄂᆞᆫ 아비ᄅᆞᆯ 보라가니 어미도 몯 보아 시르미 더욱 깁거다 ᄒᆞ야ᄂᆞᆯ (월석 8:101)

나. 갓갓 소리ᄅᆞᆯ 내야 닐오ᄃᆡ 셜블써 世界 뷔어다 (석보 23:18)

다. 그 아비 每樣 아ᄃᆞᄅᆞᆯ 念호ᄃᆡ 아ᄃᆞᆯ와 여희연디 쉬나ᄆᆞᆫ ᄒᆡ어다 호ᄃᆡ(월석 13:9)

(14) 가. 菩薩이 對答ᄒᆞ샤ᄃᆡ ᄒᆞ마 주글 내어니 子孫ᄋᆞᆯ 議論ᄒᆞ리여 (월석 1:7)

나. ᄌᆞᆫ홁길헤 잇거니 어느 구슬 ᄀᆞᄐᆞ리오 (두언 8:62)

(13가)는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형용사 「깊다」가 쓰인 용례로서 「깊을 것이다」로 해석된다. 목동이 전후 상황을 미루어 安樂國이가 시름이 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하는 것이다. (13나)에서도 같은 해석이 된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근거로 화자의 확정적인 태도가 반영되고 있

43) 이숭녕(1961:259)에서는 "간밤에 부던 바ᄅᆞᆷ 滿庭桃花 ㅣ 다 디거다(鄭敏僑의 시조)"를 「졌을 것이다」로 해석하여 '-거-'를 [가상]의 의미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객관적 사태를 근거로 사태를 단정하는 화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가상]의 의미는 화자가 사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상황에서 오는 부차적인 의미이다.

는 표현이다. 부처가 열반한 후 부처의 세계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으로 「슬프도다 세계가 비었구나」로 해석된다. (13다) 역시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반영된다. 헤어진 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아들과 헤어진지가 50여년이 되었다」고 독백하고 있다. (14)는 연결형에 쓰인 것으로 (14가)는 「이미 죽을 나이인데」 (14나)는 「진흙길에 있는데」의 해석이다. 현재 상태이며 화자의 확정적인 태도만이 차이가 있다.

'-거-'가 쓰이지 않은 용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제성은 용언의 상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보았다.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경우는 그 용언의 상적특성에 의해 과거, 현재완료의 時相성이 나타나고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경우는 현재, 현재지속의 時相성이 나타나고, '-거-'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선택된다. 화자가 사태를 확정적으로 파악하거나 사태에 대한 확신이나 감탄을 표현하는 것을 '-거-'의 기능으로 파악하였다.

B. '-거-'와 다른 선어말어미와의 관계

1) 선어말어미 배열순위의 특성

선어말어미들은 다른 선어말어미들과 결합할 때 일정한 배열순위를 가진다.[44] 그리고 그 배열순위는 각 선어말어미들의 문법적 소성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거-'의 문법적 의미는 다른 선어말어미들과의 배열 관계속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현대국어의 경우 「-시었겠더-」의 순서로 선어말어미가 나타난다.[45] '-었-'은 동작주의 행동의 時間과 相에 관계된 것이고, '-겠-', '-더-'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46] 時相범주인 '-었-'이 서법범주 '-겠-', '-더-'를 앞서고 있다.[47] 이러한 선어말어미의 배열순위와 기능과의 관계는 중세국어에서도 유효하다.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배열순위에 대해서 이승욱(1973)은 語基에서 멀어질수록 문법화의 경향이 뚜렷해 진다고 하여, '-었-'의 형성과 관련하여 '-더-'와 '-거-'는 소성의 변질과 더불어 어말어미에 기울어짐을 지적하였다. 15세기는 선어말어미 배열질서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로서, '-거-'와 '-더-'의 배열순위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러므로 '-거-'의 문법적 기능의 고찰은 선어말어미 배열순위를 통해 분명해 질 수 있다.

'-거/어-'가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때의 자리는 객체 높임법 '-숩-'

---

44) 현대국어의 선어말어미 배열 차례에 대한 논의는 고영근(1967)에서 이루어 졌다.
45) 남기심(1972)에서 종지형의 相과 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간 + (완료 / 단속) + (미확인) + (회상) + 서법 /보았었겠더라/
46) 김석득(1974)에서는 時相의 범주를 두 층위, 주체 동작상과 말할이의 심상으로 나누었다. 말할이의 심상을 본고에서는 서법범주에서 다루고자 한다.
47) Bybee(1985)에서 동사 어간과의 관여성에 따라 상범주가 서법범주 보다 어간에 가까운 것이 일반적임을 보였다.

과 주체 높임법 '-시-' 사이이다.

(1) 가. 「-숩- + -거-」 罪福올 저히숩거든 (용 124)

나. 「-거/어- + -시-」 빗근 남글 ᄂᆞ라 나마시니 (용 86)

'-거-'는 (1가)에서 객체 높임법 선어말어미 '-숩-'에 후행하고, (1나)에서 주체 높임법 선어말어미 '-시-'에 선행하여 나타난다. (1나)는 '비뚤어진 나무를 날아 넘으시니'로 해석되는데 그 행동의 주체는 李太祖로서 '-시-'는 주체 높임에 쓰이고 있다.48)

(2) 가. 「-시- + -ᄂᆞ- + -니-」 十方佛도 아ᄅᆞ시ᄂᆞ니라 (석보 13:43)

나. 「-시- + -리-」 涅槃에 드시리라 (월석 21:200)

(3) 가. 「-ᄂᆞ- + -오-」 내 ᄒᆞ마 다 아노라 (법화 1:150)

나. 「-오- + -리-」 비호ᄉᆞ보리이다 (석보 6:11)

(2)의 용례에서 '-ᄂᆞ-', '-리-', '-니-'가 '-시-'에 후행함을 볼 수 있다. (3)은 '-오-'와의 결합에서 '-ᄂᆞ-'는 '-오-'를 선행하고 '-리-'는 '-오-'에 후행함을 보여 주는 용례이다.

선어말어미 배열순위에서 '-거-'는 '-숩-'에 후행하고, '-시-', '-ᄂᆞ-', '-오-', '-리-', '-니-'를 앞서는 자리를 차지 한다. 이러한 '-거-'의 선어말어미 배열순위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더-'이다.

(4) 가. 「-숩- + -더-」 須達이 塔세오 堀짓고 種種莊嚴ᄒᆞ고 供養ᄒᆞ숩더라 (석보 6:44)

48) 허웅(1955) 참고

나. 「-더- + -시-」 그제 世尊이... 그 寶階로 ᄂᆞ려 오더시니 (월석 21:202)

'-거-'와 같이 '-더-'도 '-습-'과 '-시-'사이에 분포한다. (4가)는 '-더-'가 '-습-'에 후행하여 쓰인 것이고 (4나)는 '-시-'에 선행하여 쓰인 것이다.

이상을 근거로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들의 배열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49]

(5) 어간 + [습 + 거 + 시 + ᄂᆞ + 오 + 리 + 니 + 이 / (더)] + 다[50]

그러나 이 배열순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더-'와 '-거-'는 '-시-'를 선행하는 자리에 분포하지만 '-시-'에 후행하는 위치에서도 나타난다.[51]

(6) 「-시- + -거-」

49) 결합제약은 고려하지 않은 배열순위이다. 감동법 '-옷/돗/ㅅ-'의 순위는 논외로 한다.
50) 이승욱(1973:238)에서 시제와 관련된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 순서를 제시하였다.
어간 - 이 - 습 - 더 - 시 - ᄂᆞ - 오 - 리 - 이 - 다
51) 김문웅(1986:134-137)은 15세기 국어에서 서법범주를 나타내는 '-더-', '-거-', '-어-'의 선어말어미가 존대요소 '-시-'와 연결될 때 그 순위가 유동적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음운론적인 설명방식에서 찾고 있다. '-시-'는 開音節에 한해서만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閉音節인 경우 매개모음 '-ᄋᆞ/으-'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매개모음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 '-시더-> -더시-'의 전위방법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더-', '-거-'가 '-시-'를 앞서는 것이 보다 보편적이었다고 하면서 '-시더-'가 閉音節과 연결되었을 때 매개모음의 개입으로 음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시-'로 쓰인다는 것은 이미 '-더-', '-거-'와 '-시-'의 위치가 그 기능변이를 근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 德 일우샨 行이 ᄒᆞ마 妙코 圓ᄒᆞ시거니 어뎃던 魔事ㅣ 이시리오

(법화 7:105-6)

나. 나랏 百姓이 부터 오시거늘 ᄇᆞ라ᅀᆞᆸ고 (월석 10:6)

(6)은 '-거-'가 '-시-'에 후행하여 나타남을 보여준다. '-시-'에 선행하던 선어말어미가 '-시-'에 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의 경우에서도 동일하다.

(7) 「-시- + -더-」 이 모든 菩薩이 ... 禮敬ᄒᆞ시고 ... 讚歎ᄒᆞ시고 ᄒᆞᆫ 面에 住ᄒᆞ야 겨샤 두 世尊을 즐겨 울워러 보ᅀᆞᄫᆞ시더니 (법화 5:87)

(7)은 '-시-'와 '-더-'가 轉位된 용례로 현대국어와 같은 '-시더-'의 순서이다.

'-시-'와 '-거-', '-더-'의 자리 바뀜에 대해서는 허웅(1955), 안병희(1967), 이숭욱(1973)에서 논의된 바 있다.[52] 이 형태소들의 전위는 '-시-'의 소성의 변화가 아니라 '-거-', '-더-'의 소성변질에 따르는 연쇄적 반응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더-'와 '-거-'는 미완료와 완료의 상범주에서 기능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 '-더-'의 문법적 소성 변화는 '-리-'와의 결합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

52) 허웅(1955:67)에서는 "「ᄒᆞ거시늘 >ᄒᆞ시거늘」과 같은 變化는 一種의 轉位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轉位가 일어난 根本 理由는 '-거-'의 機能 喪失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된다. 곧 '-거-'는 원래 시제를 표시한 補助語幹이었던 듯한데, 그 기능이 不分明해짐에 따라 점차 「늘, 든, 니」 따위 어미에 膠着해 버렸기 때문에 「시」가 그 가운데 介在할 수 없게 되어서 「거」에 선행하게 된것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안병희(1967:207)에서 존경법 선어말어미 '-시-'와 시상어미 '-더-', '-거-'와의 轉位에 대해서 시상어미가 기능 약화로 후속하는 어말어미와 밀접히 결합되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다.

난다. '-리어-', '-리러-'형에 대해서 '-거-'와 '-더-'를 과거시제의 범주에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분포로 설명하였다.[53] 과거시제와 미래시제의 연결은 정상적인 배열이 아니다. '-리-'와 '-더-', '-거-'가 결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계열을 이루는 선어말어미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와 결합하여 '-거-'와 '-더-'는 화자의 태도에 관계되는 서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리-'는 동작주의 시상에 관계되어 미래시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리-'와 '-거-'의 배열순위는 '-거-'가 앞서는 「-거리-」형과 '-리-'가 앞서는 「-리어-」형 두 경우로 나타난다. 「-거리-」형의 용례는 일반적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 가. 「-거- + -리-」 淸山에 살어리랏다 (악장가사, 청산별곡)

나. 「-어- + -리-」 眞知로 그스기 化ᄒᆞ시다 닐어리로다 (월석 13:44)

(8)은 평서형에 쓰인 '-거리-', '-어리-'형이다. '-리-'을 앞서고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은 유보적이다. 前代의 '-거-'의 문법적 소성을 과거 및 완료 시상으로 전제한다면 (8)의 용례에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서형에의 이러한 배열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54] '-거리/어리-'형 보다는 '-리어/려-'형이 일반적인 쓰임으로 파악된다.

---

53) '-거-'와 '-더-'의 기능을 과거시제로 설명한 이승욱(1973:204)은 '-리-'와 '-더-', '-거-'의 결합 용례를 '-더-', '-거-'의 기능변이에서 찾고 있다. '-더-'의 소성이 단순한 과거지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와 '-리-'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世間앳 누니 업스려다'(석상 11:11)에서의 '-려-'에 보이는 '-거-'의 소성은 시제에 관계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려-'는 미래가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54) 고영근(1981:118)참고

(9) 가. 「-리- + -거(어1)-」 네 法身이 그처 업소매 호가지리어니 (능엄 1:90)

나. 「-리- + -어-」 프디 아니 호려다 (杜初 10:46)

(10) 「-시- + -리- + -어-」 城 밧긔 브리 비취여 十八子ㅣ 求호시려니 (용 69)

(9)는 「-리어-」의 순서를 통합된 용례이다. (10)은 높임법 선어말어미 '-시-'가 「-리- + -어-」형을 앞서는 예문이다.

'-더-'도 '-리-'와 통합하는 용례가 있는데 '-더리-'형은 나타지 않고, '-거-'와는 달리 반드시 '-리-'가 선행되어 나타난다.

(11) 「-리- + -더-」

가. 호다가 내 衆生 맛나 佛道롤 다 フ르치던댄 智慧 업슨 사르미 섯거 어즐호야 迷惑호야 フ르쵸믈 받디 아니 호리러라 (법화 1:208)

나. 이 말 니르싫 저긔... 光明이 하 盛호야 몬다 보수보리러니 百年閻浮檀金ㅅ 비치 ..(월석 8:17)

(12) 「-시- + -리- + -더-」 믜요믈 내시리러니라 (금강 80)

(11가)는 종결형에 쓰인 '-리러-'형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겠더라」로 해석이 된다. 발화시 기준 과거, 경험시 기준으로 미래의 시제이다. (11나)는 연결형에 쓰인 용례로 부처가 설법하는 상황이다. 역시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 경험시를 기준으로 미래의 시제이다. (12)는 '-리-'가 '-더-'와 결합할 때 '-리러-'에 '-시-'가 선행함을 보이는 용례이다. 「높임법 + 시제

+ 시제 + 서법」의 배열을 이룬다.

'-리-'와 통합하는 데에 있어 '-거-'와 '-더-'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거리(어리)-'형은 용례가 나타나지만 '-더리-'형의 용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와 '-더-'가 선어말어미 배열순위가 같지만 그 기능의 변화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거-'와 '-시-', '-리-'의 배열순위의 변화는 '-거-'의 소성의 변화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거-'와 '-더-'가 문법적 소성이 변화하면서 이미 그 기능이 다극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선어말어미 배열순위의 변화에 따라 '-거-'의 문법적 소성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의 배열순위 변화는 다음과 같다.

(13)

어간 +	숩 + ① 거 + 시 + 느 + 오 + 리 + ② 거 + 니 + 이 (더) (더)	+ 다

15세기 국어에서 '-거-'와 '-더-'는 그 문법적 소성의 변화로 '-숩-'과 '-시-'사이의 ①의 위치에서 '-리-'의 뒷자리 ②의 위치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변화의 동기는 '-어 잇- > -엣- > -엇-'의 문법화로 추정되고 있다.[55] '-어 잇-'이 형성되면서 시상기능으로 정착되어가고 ①의 자리에서 ②로 轉位되는 '-거-'와 '-더-'는 서법의 기능을 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 잇-'은 완료 지속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56]

---

55) 이승욱(1973), 한동완(1986) 참고
한동완(1986:243-6)은 '-엇-'의 생성을 전후하여 '-더-'가 선어말어미간의 배열서열이 바뀌었으며, '-거-', '-어-'는 생산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
56) '-어 잇-'에 대한 연구는 이기갑(1981), 한동완(1986), 김종태(1987), 김석득(1987)에서 이루어 졌다.

(14) 가. 네 이제 ... 부텨를 맛나 잇ᄂᆞ니 (석보 6:20)

나. 帝釋이 가온ᄃᆡ 위두ᄒᆞ야 잇ᄂᆞ니 (월석 1:31)

(15) 가. 나를 爲ᄒᆞ야 賈公더브러 致謝호ᄃᆡ 肺病ᄒᆞ야 江泥예 누엇더라 ᄒᆞ라 (두언 22:48)

나. 河陽앳 軍卒ㅣ 흗듣 아니ᄒᆞ니 史思明이 거즛 臣妾이 ᄃᆞ외얏더니라 (두언 24:16)

(14)에서 '-어 잇-'은 완료된 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15)는 '-어 잇-'에 '-더-'가 쓰인 용례로 경험시 기준으로 완료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15가) 「폐병이 나서 江泥에 누었더라」로 해석된다. '-엇-'이 동작주의 시상과 관계된 것이라면 '-더-'는 그 상황을 회상하여 말하는 화자의 태도와 관계된 서법의 기능을 한다. (15나) 역시 같은 쓰임이고 발화시 기준으로 과거의 상태이다. 「河陽의 軍卒이 흩어지지 않아서 史思明이 거짓으로 臣妾이 되었더라」로 해석된다. 완료된 사태를 회상하여 말하는 것으로 현대국어에서와 같은 해석이다. 이러한 '-엇-'과 '-더-'의 결합용례는 '-엇-'과 '-거-'의 결합용례와 비교 가능하다.

(16) 霜骨이 甚히 기디 몯ᄒᆞ야 기리 이웃 사ᄅᆞᄆᆡ 슬후미 ᄃᆞ외옛거니라 (두언 6:37)

(17) 가. 野老ㅣ 이 곤ᄒᆞᆫ 田地를 어덧거니 엇데 시르미리오 (남명 下 57)

나. 新桓精舍애 大衆이 모댓거늘 舍利弗이 듣ᄌᆞᄫᆞ니 (월석 7:56)

(16-17)은 '-어 잇-'에 '-거-'가 쓰인 용례이다. (16)은 종결형에서의 쓰임이고 (17)은 연결형에서의 쓰임인데 연결형과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롭

다. (16)은 (15나)와 같은 조건 '-니라'에 쓰인 것으로 그 의미가 명확히 비교된다. (16)은 「霜骨이 심히 길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웃 사람들의 슬픔이 되었다」라는 완료된 사태를 화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거-'가 사태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중심이라면 '-더-'는 사태를 화자의 회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완료된 사태를 회상하는 (15나)와는 서법범주로서 대립되는 것이다. 이때 '-거-'에서는 이미 완료의 기능은 이미 찾을 수 없다. (17가)는 「얻었으니」의 뜻으로 해석된다. (17나)는 「몯아 잇거늘」의 축약으로 「모여 있거늘」의 뜻이다. 완료의 의미는 '-엇-'에서 비롯된 것으로 완료의 의미는 '-거-'에서 찾아지지 않는다.[57]

'-거-'의 문법적 소성은 '-어 잇-' 형성에 있어 '-더-' 보다는 더 적극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 잇-'과의 결합에서 '-더-'의 시제성은 유지되지만 '-거-'에서는 時制나 相의 기능은 이미 소실되어 가고, 화자의 사태에 대한 단정, 확신, 스스로의 확인 등의 태도만을 반영하는 서법형태소로 기능한다.

2) '-거-'와 다른 선어말어미 결합의 특성

선어말어미들은 서로 결합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서로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이 있다. 선어말어미 결합상의 특성은 문법적 의미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는 없다. 동일순위에서 서로 배타적인 분포에 놓이는 형태소

57) 이승욱(1973:203)에서 過去時制의 선어말어미로 固定되어간 '-앗/엇-'과의 연결관계에서 '-거-'도 과거의 범주로 기능하는 소성이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연결형식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용례를 제시하였다.
　엇뎨 搖落호믈 相對ᄒᆞ얫가니오 (두언 6:31)
　프른 대예 몃사ᄅᆞ미 올앗거니오 (두언 20:23)
그리고 '-엇-'과 결합된 이러한 쓰임을 '-거-'의 소성변화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세기의 자료에 反射된 '-거-'는 대단히 多邊的인 파생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는 동일 계열의 문법범주로 분류될 가능성을 가진다.

선어말어미 '-거-'는 '-더-'와 '-ᄂᆞ-'와 결합하는 용례가 없어 배타적인 분포이다. '-거-'의 문법적 의미는 결합 제약을 보이는 '-더-'와 '-ᄂᆞ-'와의 비교에서 명확해 질 수 있고 결합이 가능한 '-리-'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계열에서 설명될 수 있다.[58]

중세국어의 시제체계는 과거 '-더-', 현재 '-ᄂᆞ-', 미래 '-리-'이다. 안병희(1967), 이숭녕(1973)에서는 '-거-'와 '-더-'의 선어말어미 결합시의 동일한 분포를 고려하여 '-더-'와 '-거-'를 과거시제의 형태소로 다루고 있지만 '-거-'는 이미 시제기능을 잃어 가는 상태였다. 반면에 '-거-'와 선어말어미 배열순위가 같은 '-더-'는 과거시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중세국어의 '-더-'는 현대국어와는 쓰임에 차이가 있다. 다음의 '-더-'의 용례는 그 기능이 본래 과거, 미완료가 아니였나 생각하게 한다.

(18) 가. 내 아기 조차 간 後에 내 지븨 이셔 날마다 五百僧齊 ᄒᆞ다라 (월석 23:74)

나. 부톄 더브러 精舍에 도라오샤 무르샤ᄃᆡ 네 겨집 그려 가던다 對答ᄒᆞᅀᆞᄫᆞᄃᆡ 實엔 그리ᄒᆞ야 가다이다 (월석 7:10)

(19) 내 ᄒᆞ던 이리 甚히 외다ᄉᆞ이이다. (석보 24:18)[59]

---

58) 높임법 선어말어미 '-습-', '-시-', '-이-', 의도법 '-오-', 규정법 '-니-', 감동법 '-옷-' 또한 '-거-'와의 결합이 가능한 선어말어미이지만 '-거-'의 문법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직접 관련된 형태소들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거-'와 선어말어미 배열시 동일 순위에서 배타적 분포에 나타나는 '-더-'와 時相선어말어미 '-ᄂᆞ-', '-리-'와의 관계만을 고려한다.

59) 용례 (18-19)는 최동주(1988: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최동주는 15세기 국어에서 '-더-'의 의미가 과거, 비완료상임을 주장하였다. 현대국어에서는 특수한 상황(꿈을 꾼 내용을 설명)이 아니면 비동일 주어 제약이 있고 매김법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어 마침법과 매김법에 불일치 현상이 있는 반면, 15세기 국어에는 용례 (18), (19)와 같이 마침법과 매김법에 불일치 현상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15세기 국어에서 '-더-'의 의미를 과거, 비완료상임을 밝혔다.

(18)은 일인칭 주어에 '-더-'가 쓰인 용례로 현대국어와는 다른 쓰임이다. (18가)는 羅卜의 어미가 益利에게 「내가 날마다 五百僧齊하고 있었다(하였다).」로 해석된다. (18나)는 부처를 피해 가던 難陀가 이미 알고 온 부처를 만나 함께 精舍에 와서 부처께 대답하는 상황으로 「사실은 그리하여 가고 있었습니다(갔습니다).」로 해석된다. 현대국어와는 달리 일인칭 주어문에 '-더-'가 쓰이고 있으며 해석은 모두 과거, 미완료상으로 파악된다.[60] (19)는 관형형에 쓰인 '-더-'로 미완료상이다.[61]

'-거-'와 '-더-'가 동일한 선어말어미 배열순위를 가짐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리고 배열순위의 변화는 '-거-'와 '-더-'가 시상적 기능에서 서법적 기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임을 논의하였다. 즉 '-더-'와 '-거-'는 「비완료:완료」의 相대립에서 「회상:확정」의 敍法대립으로 계속된다.[62] 즉, '-거-'와 '-더-'는 동일순위에서 배타적인 분포를 가지는 동일 범주의 대립 형태소이다.[63] 다음은 각각 '-더-'와 '-거-'가 쓰인 용례로 그 대립을 보여준다.

(20) 가. 軍匿이 寶冠 가져 도라오나늘 王이 보시고 짜해 업더디여 우르시며 俱夷는 물 고개롤 안고 우르시더라 (석상 3:34)

---

60) 이승욱(1977)에서 '-다-'는 시상체계의 형태로, '-더-'는 '-다-'와는 層位가 다른 화자의 회상적인 서술태도에 관계하는 양태적 서법범주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61) 서정수(1983)에서 '던'은 일반적으로 지속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62) 이승욱(1973:200)은 '-더-'와 '-거-'의 대립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相 aspect의 面, 즉 '-더-'는 未完了인 데 반하여 '-거-'는 完了相이다. ② 關語的인 意味, '-더-'가 體驗的인 回想이라면 '-거-'는 客觀的 假想의 분위기이다. ③ 특히 '-거/가-'는 敍述主體의 意志的인 意味가 나타난다.
63) 서태룡(1988), 권용경(1990)은 '-거-', '-더-', '-느(ᄂᆞ)-'의 배타적인 분포를 근거로 '-거-'와 '-느(ᄂᆞ)-', '-더-'를 동일 범주에서 설명하였다. 서태룡은 현대국어 어미 통합체를 재분석하여 '-거-'는 [미지각][가능], '-느-'는 [현재지각], '-더-'[과거지각]으로 설명하였다. 권용경은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서법범주에서 세 형태소의 대립을 논의하였다. '-거-'는 확정법, '-더-'는 회상법 '-ᄂᆞ-'는 현실법으로 서로 대립되는 동일범주의 형태소라고 하였다.

나. 내 本來 求홀 ᄆᆞᅀᆞᆷ 업다니 오ᄂᆞᆯ 寶藏이 自然히 오나다 (월석 13:32)

(21) 가. 부텨 舍衛國에 겨시거늘 掘山中에 五百 도ᄌᆞ기 이셔 길헤 나 사ᄅᆞᆷ 티고 도ᄌᆞᆨ ᄒᆞ더니 (월석 10:27)

나. 功德을 漢人도 ᄉᆞᆲ거니 國人 ᄆᆞᅀᆞ미 엇더ᄒᆞ리잇고 (용 72)

(22) 가. 이 閻浮提ㅅ 善行ᄒᆞ던 사ᄅᆞ미 (석보 13:51)

나. 하ᄂᆞᆯ해 나건디 오ᄂᆞᆯ 사ᄋᆞ리 디나니 (월석 21:23)

(20가)와 (20나)는 평서형에 쓰인 '-더-'와 '-거-'의 비교 예문으로 화자의 경험에 의한 서술과 화자의 확정적인 태도의 대립으로 파악된다. (21)은 연결형에 쓰인 용례로 역시 (21가)는 '-더-'에 의해 경험에 의한 회상적 진술이고, (21나)는 화자가 「功德을 漢人이 말하」는 상황을 강조하여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이다. (22)은 관형형에 쓰인 '-더-'와 '-거-'의 용례로 (과거)미완료와 완료로 각각 쓰인 것으로 '-더-'의 이러한 쓰임은 계속되지만 '-거-'의 쓰임은 제한되기 시작한다.

'-거-'는 '-ᄂᆞ-'와도 결합하는 용례가 없다. '-ᄂᆞ-'는 현실법(허웅:1975), 직설법(고영근:1981)[64], 현재형(이숭녕, 안병희, 이숭욱), 이적나아감(나진석:1971), 과정상(김차균:1987)으로 설명되었다. '-ᄂᆞ-'는 현재 진행중인 사태의 진술에 쓰이는 것이다.

(23) 가. 어미ᄃᆞ려 닐오ᄃᆡ 아바님이 겨싫 저긔 천랴이 그지 업더니 이제는 庫엣 거시 다 뷔여갈ᄊᆡ 내 도ᄂᆞᆯ 가져 다ᄅᆞᆫ 나라해 가 홍정ᄒᆞ야 오고져 ᄒᆞ노이다 ᄒᆞ고 (월석 23:72)

64)고영근(1981)에서 직설법은 동사에는 선어말어미 '-ᄂᆞ-'가 통합됨으로써 성립되고 형용사와 지정사에서는 현대국어와 같이 부정법 형태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 益利 지브로 오거늘 金支라 호리 ᄇ라고 ᄃ라드러 그 어미그에 닐오ᄃ 아기씨 오시ᄂ이다 (월석 23:73-4)

(23가)는 羅卜이 어미에게 흥정하러 간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현재시제이다. (23나)는 아기씨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보고하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상이다. '-ᄂ-'와 '-거-'의 결합하는 데에 제약은 의미상의 제약으로 보인다. '-거-'의 기능이 시제체계에서 완료의 기능과 관계되었다는 사실에서 '-ᄂ-'와의 결합제약이 비롯되었고 그 시상 기능이 상실되면서도 '-ᄂ-'와의 결합 제약은 계속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가 객관적인 일로 드러난 경우 회상이나 단정과 같은 화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거-'는 '-더-', '-ᄂ-'와 결합하는 용례가 없지만 '-리-'와는 '-리어-' '-려-'의 형태으로 나타난다. '-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거-'의 서법적 기능은 더욱 확실해 진다.[65] '-리어-'형을 미래완료의 時相기능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66] 다음의 용례에서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확신으로 해석된다.

(24) 가. 虛空中에 구룸 니르와ᄃ며 울에 번게 ᄒ며 ᄇᄅ미 부러서 서늘ᄒ야 이ᄀ티 種種 다 비 올 相이라 ᄒ마 비오려다 (월석 10:85)

나. 拘尸國王이 또 臣下 뫼호아 論議ᄒ야 偈 지ᅀ 對答호ᄃ 그듸네 머리셔 ᄀ비 오난마ᄅ 如來ㅅ 舍利는 몯 나소리어다 (석보 23:54)

65) 안병희(1967:211)에서 '-리-'가 미래에 일어날 동작을 추측하는 형태소라고 하고 '-리어-'형은 미래에 완료될 동작을 가상하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즉 '-거-'에 완료 가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6) 이광호 "중세국어 시제어미에 대하여"에서 '-리러-'형과 '-리어-'형에서 '-리-'는 미래로 '-더-'는 미완료상, '-거-'는 완료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다. 王이 놀애를 브르샤딕 아라녀리 그츤 이런 이븐 길헤 늘보리라 ᄒᆞ야 우러곰 온다 아가 大慈悲 우리는 願薦와 功德修行ᄒᆞᄂᆞ 이내몸과 成等正覺 나래사 반ᄃᆞ기 마조 보리어다 (월석 8:101)

라. 城 밧긔 브리 비취여 十八字ㅣ 救ᄒᆞ시려니 가라 ᄒᆞ돌 가시리잇가 (용 69)

(24가)에서는 객관적 사태를 근거로 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장차 비가 오겠다'는 미래의 사건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67) (24나) 여러 나라 왕들이 頌을 지어 "舍利를 주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사리를 얻어 가겠다"고 하자 拘尸國王이 偈를 지어 대답하는 내용으로 사리는 바치지 못하겠다는 화자의 뚜렷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화자의 확실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드러난다. (24다)는 沙羅樹大王이 아들 안락국을 만나 부르는 노래로서 '반ᄃᆞ기'라는 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자의 확신적 태도가 보인다. (24라)는 「十八字(李太祖를 지칭)가 구하실 것이 분명한데 가라고 한들 가시겠습니까」의 의미로 역시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관련되어 확신의 의미로 파악된다.

(25) ᄒᆞ다가 淚호물 아디 몯 홇딘댄 또 뽀물 몯ᄒᆞ야 반ᄃᆞ기 아로미 업스리어니 뎨 마시라 일훔ᄒᆞ리오 (능엄 3:28)

67) 고영근(1981:116)에서 'ᄒᆞ마 비오려다'에 대해 心證과 같은 주관적 경험에 의해 비올 것을 예측, 확인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25)는 가정문에 쓰인 '-거-'이다. 이숭녕(1961)에서는 '-거-'를 가상법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태룡(1988)에서는 [미확정]으로 기본의미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가상'은 '-거-'의 기본의미로 보기 힘들다. 'ᄒᆞ다가'는 연결어미 '-ㄴ덴'에 호응하여 가정문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은 주절의 '-리-'와 관련된다. '-거-'는 '반ᄃᆞ기'라는 부사와 호응하여 사태에 대한 화자의 확정적이고 확신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한다. 즉, 가정은 'ᄒᆞ다가 ~인덴 ~ᄒᆞ리'의 共起관계에서 드러나는 의미이며, '-거-'는 '반ᄃᆞ기'와 共起하여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가상의 서법 표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뒷바침된다.

(26) 가. ᄒᆞ다가 보미 이 物인덴 네 ᄯᅩ 어루 내 보ᄆᆞᆯ 보리라 (능엄 2:35)

나. 壽量秘設을 기피 信解ᄒᆞ니 아닌덴 이에 參預 몯ᄒᆞ리라 (법화 5:199)

(26)은 '-인덴.....리라'의 형식을 갖는 가정문이다. (25)와 비교해 '-거-'의 개입여부는 가정구문과는 무관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본절에서는 '-거-'의 선어말어미 배열순위, 결합 특성을 고찰하였다. '-거-'는 선어말어미 배열순위에서 '-습-'과 '-시-'사이의 위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 배열순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시거-', '-리어-'의 순서로 '-시-', '-리-'에 후행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순위의 변화는 '-거-'의 소성 변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엇-'이 형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거-'는 '-더-'와 '-ᄂᆞ-'와 결합하는 용례가 없다. '-더-'는 '-거-'와

동일 순위에서 배타적인 분포를 가지는데 배열순위의 변화 또한 동일하다. 「완료:미완료」의 상범주에서 대립관계를 이루던 '-거-'와 '-더-'는 '-엇-'과 결합하여 서법범주에서 「확정:회상」의 의미 대립을 이루었다. 즉, '-거-'가 발화시 현재 화자의 사태에 대한 확정적이고 확신적 태도에 대한 것이라면, '-더-'는 화자가 경험한 사태를 회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ᄂᆞ-'는 현재 진행상의 시상형태소로 객관적인 사태 진술에 쓰이는데, '-거-'의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는 의미적으로 대립된다. '-거-'는 '-리-'와 결합 되는데 '-리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확신으로 해석되었다.

C. '-거-'와 어말어미와의의 관계

중세국어에서 '-거-'의 時相 기능이 이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말어미와의 관계에서도 보여진다. 완료 기능으로의 쓰임은 관형형에서 그 흔적이 보여지는데 관형형에서의 사용은 점차 그 쓰임이 한정되고 있다. 그리고 '-거-'와 '-시-'의 轉位를 거치면서 점차 연결어미와 결합이 굳어지는 상황이다. 종결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 연결어미, 관형형어미로 분류되는데, '-거-'의 의미가 각 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겠다.

1) 종결형에서의 의미

종결어미에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 있다.[68] 평서형에서 비교적 '-거-'의 기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1) 勞度差ㅣ ᄯᅩ 呪ᄒᆞ야 ᄒᆞᆫ 모ᄉᆞᆯ 지ᅀᅳ니... 舍利弗이 큰 牙白象ᄋᆞᆯ 지ᅀᅥ내니 그 못므를 다 마시니 그모시 다 스러디거늘 모다 닐오ᄃᆡ 舍利弗이 이긔여다 (석보 6:31)

(1)은 [-상태성][+순간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거-'의 용례이다. 화자는 사건의 현장에서 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거-'의 확정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완료相으로 해석이 두드러진다. (1)은

---

68) 청유형 '-져'에 '-어-'가 쓰인 '내 보아져 ᄒᆞᄂᆞ다 (석보 6:14)'의 용례가 있지만 '-거-'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ᄂᆞ-'와 '-더-'가 쓰인 용례가 없어 의미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는다. 명령형 역시 '-더-'와 계열관계로 의미를 비교할 수 없다. 이와같은 경우 '-거-'의 단독의 의미를 얻을 수가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勇度差와 舍利弗의 대결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리불의 승리를 斷定하는 것으로 「舍利弗이 이겼다」로 해석된다. 그러나 '-거-'가 쓰이지 않은 무표의 경우와의 차이는 완료라는 相적인 쓰임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2) 가. 블 디 더 흔 디위만 ᄒᆞ면 닉ᄂᆞ니라 이 고기 닉거다 네 맛보라 (노걸 上 20)

나. 술와 사발 다 잇다 네 머그라 우리밥도 머거다 (노걸 上 57)

다. 모딘 노미 比丘를 주규리라 ᄒᆞ야 比丘ᄃᆞ려 닐오ᄃᆡ 뎌 좋아 닐웨 ᄒᆞ마 다ᄃᆞᆫ거다 (석보 24:15)

라. 문득 神人이 現身ᄒᆞ야늘 律師 ㅣ 놀라 그ᄃᆡ 엇던 사ᄅᆞ민다 무ᄅᆞᆫ대 對答호ᄃᆡ 내 北方毗沙門天王ㅅ 아ᄃᆞᆯ 威大將軍이로니 天帝ㅅ 命을 받ᄌᆞ와 擁護컨디 오라거다 ᄒᆞ니라 (능엄 7:62)

'-거-'가 사용된 용례가 대부분 독백인데 비해[69] (2)는 대화상에 쓰인 것으로 화자의 확정적인 태도에서 '-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가)는 「이 고기가 익었다 맛 보아라」의 해석이다. (2나)는 「우리밥도 먹었다」의 해석이다. (2다)는 比丘가 이레 동안만이라도 살려 달라고 하여 모진놈이 이레가 지난 후 비구를 죽일 생각으로 「이레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2라)는 神人과 律師의 대화이다. 「天帝의 命을 받아 擁護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다. 현대국어로 모두 「-었다」의 해석이 가능하다.

---

69) 고영근(1981:120)에서 확인법은 화자가 사태를 결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할 때 쓰이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통보행위가 자동적으로 一方性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가. 쇼칠 아히 놀애롤 블로딕 安樂國이는 아비를 보라가니 어미도 몯 보아 시르미 더욱 깁거다 ᄒᆞ야놀 (월석 8:101)

나. 衡陽엣 죠힛 비디 다 能히 놉거니라 (두언 22:16)

(3)은 [+상태성]의 相的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거-'의 용례이다. (3가)는 안락국이 아비 沙羅樹大王을 만나고 가는 길에 安樂國의 어미 鴛鴦부인이 長者에게 죽은 것을 아는 목동이 부르는 노래로 안락국이 시름이 깊겠다는 사실을 전후상황으로 미루어 단정하는 것이다. 최태영(1965)은 가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거-'와 '-리어-'형을 고려할 때 가상은 '-거-'의 기본의미로 삼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주어가 목동 자신이 아닌 안락국이고 심리동사가 쓰였다는 문맥적 환경에 의한 파생적 의미이다. (3나)는 「衡陽의 종이 값이 높을 것이다」로 해석된다. 역시 가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화자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신있게 단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가. 내 聖師 ㅣ ᄃᆞ외야 닐흔 아홉히에 ᄒᆞ욜이롤 ᄒᆞ마 ᄆᆞ초니 너희돌히 힘뻐 ᄉᆞ라 바미 ᄒᆞ마 半이어다 계으른 뜻 먹디 마라라 (석보 23:13)

나. 그저긔... 소리롤 내야 닐오딕 설블써 세계 뷔어다 ᄒᆞ며...설블써 世間애 慧日이 업스샤 올워ᄉᆞᄫᆞ리 업거시다 ᄒᆞ며... 설블써 衆生이 正ᄒᆞᆫ 길홀 일허다 ᄒᆞ며 (석보 23:18-19)

다. 摩耶 ㅣ... 棺알퓌 나ᅀᅡ가 禮數ᄒᆞ시고 울며 니ᄅᆞ샤딕 無量劫으로셔 長常 母子 ㅣ ᄃᆞ외야 오다니 ᄒᆞᄅᆞᆺ 아ᄎᆞᄆᆡ ᄂᆞ외야 몯 보ᅀᆞᆸ게 ᄃᆞ외요니 설블써 衆生ᄋᆡ 福이 다ᄋᆞ거다 ᄒᆞ시고 (석보 23:28)

(4가)는 世尊이 阿難에게 설법하는 내용으로 「밤이 이미 반이 지났으니 게으른 뜻 먹지 말아라」의 해석이다. (4나)는 부처 열반후 부처의 모든 세계가 슬퍼하는 것으로 「슬프다 세계가 비었구나」, 「슬프다 世間에 慧日이 없으시니 우리를 사람이 없으시구나」, 「슬프다 衆生이 바른 길을 잃었구나」의 해석이다. (4다)는 부처가 열반에 든 후 부처의 관 앞에서 마야 부인이 슬픔을 말하는 장면으로 '중생의 복이 다했구나'로 해석된다. 역시 '설볼써'라는 감탄사로도 알 수 있듯이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용례로 '부처가 열반에 들었다'라는 객관적 사태를 근거로 '중생의 복이 다했다'고 단정하여 말하고 있다. (4가-다) 모두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4가)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4나-다)는 화자의 슬픔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경우 '-거-'는 사태를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70)]

(5) 가. 그제 가ᄉᆞ면 長者ㅣ 師子座에셔 아ᄃᆞᄅᆞᆯ 보고 아라 보아 ᄆᆞᅀᆞ매 ᄀᆞ장 깃거 너교ᄃᆡ 내 천량 庫藏ᄋᆞᆯ 이제 맛듏ᄃᆡ 잇거다 (월석 13:14)

나. 내 샹녜 이 아ᄃᆞᄅᆞᆯ 思念호ᄃᆡ 봃주리 업다니 제 오니 내 願에 심히 맛거다 (월석 13:14-5)

다. 王이 ᄇᆞ라시고 두소ᄂᆞᆯ 드르샤 부텻 바ᄅᆞᆯ 向ᄒᆞ야 니ᄅᆞ샤ᄃᆡ 如來 소ᄂᆞᆯ 내 모매 다히샤 나ᄅᆞᆯ 便安케 ᄒᆞ쇼셔 내 이제 世尊ᄋᆞᆯ ᄆᆞᄌᆞ막 보ᄉᆞ보니 측ᄒᆞᆫ ᄆᆞᅀᆞ미 업거이다 (월석 10:8)

라. 王이 臣下ㅣ며 眷屬ᄃᆞ리고 尊者의 가 밤 받ᄌᆞᆸ고 ᄡᅡ혜 업데여

70) 고영근(1981:120)에서 확인법은 화자가 사태를 결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할 때 쓰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通報行爲가 자동적으로 一方性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4)는 이러한 '스스로 확인 하고자 한다'는 해석이 적합한 용례이다.

禮數ᄒᆞ고 ᄯᅩ려 合掌ᄒᆞ야 닐오ᄃᆡ 내 閻浮提예 爲頭ᄒᆞᆫ 王이 ᄃᆞ외요ᄆᆞᆫ 깃브디 아니ᄒᆞ고 오ᄂᆞᆯ 尊者 보ᅀᆞᄫᆞ니 깃부미 그지 업서이다 ᄒᆞ고 尊者ᄅᆞᆯ 請ᄒᆞ야 (석보 24:34)

마. 그제 貧窮ᄒᆞᆫ 아ᄃᆞ리 ᄆᆞᅀᆞᆯ돌해 노녀 國邑을 디나 아비 잇ᄂᆞᆫ 城에 다ᄃᆞᄅᆞ니 그 아비 每常 아ᄃᆞᆯ 念호ᄃᆡ 아ᄃᆞᆯ와 여희연 디 쉬나ᄆᆞᆫ ᄒᆡ어다 호ᄃᆡ (월석 13:9)

(5)는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에 쓰인 '-거-'의 용례이다. 사태는 화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사태가 화자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사태에 대해 화자의 태도가 확신이나 감동, 감탄과 같은 감정으로 나타나게 한다. (5가)는 長者가 아들을 만나 기뻐하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맡길 데가 있다는 독백이다. (5나)는 계속이어지는 상황으로 그러한 사태가 자신의 소원과 일치함을 역시 기뻐하는 것이다. (5다)는 王이 부처를 만나 기쁨을 얘기하는 장면이다. (5라)는 阿育王이 존자를 만나 기뻐하면서 하는 말로 「오늘 존자를 뵈오니 기쁨이 그지 없습니다」로 해석된다. (5마)는 헤어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슬퍼하며 독백하는 것이다.

일인칭 주어에 쓰인 '-과-'의 해석은 사태가 화자와 직접관계된 (5)에서의 해석과 비슷하다.

(6) 가. 長者ㅣ 아ᄃᆞ리 火宅에 나 네거리예 住호ᄆᆞᆯ 보고 師子座에 안자 제 慶賀ᄒᆞ야 닐오ᄃᆡ 내 이제 훤히 즐겁과라 (법화 2:137)

나. 難陀ㅣ 머리ᄅᆞᆯ 갓고도 샹녜 지븨 가고져 ᄒᆞ거늘 부톄 샹녜 더브러ᄒᆞ니실ᄊᆡ 몯가더니 홀ᄅᆞᆫ 房ᄋᆡ 홀 ᄌᆞ비 ᄒᆞ야 오ᄂᆞᆳ사 ᄉᆞᄉᆡ 얻과라 깃거 ᄒᆞ더니 (월석 7:9)

다. 그제 諸梵天王이 부텻 알ᄑᆡ 一心으로 ᄒᆞᆫ소리ᄒᆞ야 偈로 頌ᄒᆞᅀᆞ

오딕 世尊이 甚히 보ᅀᆞ오미 어려우샤 ...오ᄂᆞᆯ사 맛나ᅀᆞᆸ과이다 (법화 3:120)

(6가)는 長者가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는 말로 자신의 즐거움을 감탄하고 있다. (6나)는 難陀가 집에 가고 싶어 하다가 기회를 얻어 「오늘에야 사이를 얻었구나」하며 기뻐하는 내용이다. (6다)는 諸梵天王이 부처를 만나서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오늘에야 부처를 만났습니다」로 해석된다.

'-거-'와 통합되는 의문법 어미는 「-ㄴ다」, 「-니여」, 「-뇨」, 「-리여」, 「-리잇가」이다. 의문법에서 '-거-'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7) 가. 王이 또 누겨 닐오딕 그러면 닐웨를 뒷다가 주교리라 ᄒᆞ고...
닐웻 자히 王이 사ᄅᆞᆷ브려 무로딕 닐웻 ᄉᆞᅀᅵ예 네 快樂ᄋᆞᆯ 젼ᄌᆞᆺ
ᄒᆞ얀다 善容이 對答 호딕 보도 몯ᄒᆞ며 듣도 몯거니 므스기 快
樂ᄒᆞᄫᆞ리잇고 王이 親히 가 무로딕 네 내옷 닙고 내 宮殿에 드
러 내 풍류바지 ᄃᆞ리고 됴ᄒᆞᆫ 차반 먹고 이쇼딕 엇데 몯듣고 몯
보노라 ᄒᆞᄂᆞ다 (석보 24:28)
나. 善宿ㅣ 즉재 무덤ㅅ 서리예 가 ᄒᆞ마 다ᄃᆞᄅᆞᆯ 저긔 뎌 주거미 무
루피며 바리며 다 놀여 문득 줏구리 안ㅅ거늘 善宿ㅣ 나ᅀᅡ가
닐오딕 究羅帝여 네 命終ᄒᆞᆫ다 (월석 9:36)

(7)은 2인칭 주어에 쓰인 의문문으로 (7가)는 '-어/야-'가 쓰인 용례이고 (7나)는 쓰이지 않은 용례로 두 경우 모두 완료相으로 해석된다. (7가)는 阿育王이 아우인 善容의 나쁜 생각을 고치기 위해 7일 후 죽이겠다고 하고 그동안 마음껏 즐기게 한 후의 상황으로 7일이 지난후 마음껏 즐겼느냐고

묻는 것이다.[71] 마음껏 즐겼을 것을 확신하면서 묻는 화자의 태도에서 '-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나)는 善宿이 究羅帝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가에 가서 묻는 장면으로 「究羅帝여 너 죽었느냐」로 해석된다. (7나)와 비교할 경우 (7가)의 '-야-'는 완료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화자가 사태를 확정적으로 보는 태도만 보일 뿐이다.

(8) 가. 가난코 病호물 사르미 모로매 브리는 주를 因ᄒᆞ야 아노니 能히 韋郎 으로 히여 자취를 또 疎히케 ᄒᆞ거녀 (두언 21:25)[72]

나. 나그내(두보)는 어느 ᄀᆞ올로 조차 와 오래 셔서 怪異히 너겨 盱嘆호ᄆᆞᆯ 오래 ᄒᆞ가니오 (두언 18:16)

(8가-나)는 非二人稱 의문문 '-니여', '-니오'형에 쓰인 것이다. 역시 확정적인 인식 태도(화자의 확신)에서 '-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9) 가. 土木ᄋᆡ 빗나ᄆᆞᆯ 구틔여 ᄢᅴᄒᆞ리아 (두언 6:36)

나. 구틔여 녯 수프렛 님자히로라 ᄒᆞ야리아(敢爲故林主) 百姓도 오히려 便安티 몯ᄒᆞ니라 (두언 21:19)

(9)는 수사 의문문으로, (9나)는 「구태여 옛 숲의 주인이라고 하겠는가」로 해석되는데 '-거-'의 의미는 (9가)와 비교해 화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73]

---

71) 고영근(1981:114)에서 '-언다'는 화자가 청자에게 확신성있는 답변을 구할 때 쓰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인칭 의문문이 아닌 경우 청자를 인식하지 않는 간접 의문문이 많으므로 의문문에 쓰인 '-거-'의 일반적인 의미는 될 수 없다.
72) 이현희(1982:27)에서 재 인용한 용례로 화자가 「능히 偉郎으로 하여금 자취를 疎하게 한다」는 사태를 확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73) 이현희(1982:29-31)에서 '-어리여', '-려뇨'는 화자가 판단할 때 그 묻는 내용 즉, 사태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

2) 연결형에서의 의미

중세국어에서 '-거-'와 연결어미와의 결합 용례는 현대국어까지 이어진다. 종결형이나 관형형에서의 사용이 쓰이지 않게 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숭녕(1961)에서는 연결어미에 나타나는 '-거-'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가상이라고 설명하였다.[74] 그러나 가상이라는 것은 조건절을 형성하는 '-니', '-ㄴ댄', '-든'등의 연결어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75]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용례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드러난다.

연결어미 '-니'는 원인, 이유, 조건, 가정, 상황, 설명의 계속을 나타낸다.[76] '-거-'와 결합될 때는 『....거니 ᄒᆞ믈며(엇뎨, 뉘, 므스기).... 리오(리여, 리잇고, 리잇가)』의 구성으로 나타난다.[77]

(1) 가. 이세롤 罪지순 果報로 나다 너기디 말라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뎌 나라해 三惡道ㅣ 업스니 舍利弗아 뎌 나라해 惡道ㅅ 일훔도 업거니 ᄒᆞ믈며 眞實ㅅ 새이시리여 이 새돌ᄒᆞᆫ 다 阿彌陀佛이 法音을 펴리라 ᄒᆞ샤 變化로 지스시니라 (월석 7:76)

나. 맛과 對왜 업거니 므스글 브터 界 셔리오 (능엄 3:50)

(1가-나)는 '-거니'의 용례로 이숭녕(1961), 최태영(1965)에서는 反意

음을 보여준다고 하여 '부정적 확신'으로 설명하였다.

74) '-거-'의 기능을 가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숭녕(1961), 최태영(1965)에서 이다. 최태영(1965:60)은 15세기 문헌에서 '-거-'가 연결된 형태로 가장 많이 쓰인것은 연결어미에서라고 하면서 사용 빈도수가 많지 못한 종결형에 중점을 두고 관찰하는 방법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연결어미에 쓰인 '-거-'는 거의 어미화하여 '-거-'의 형태소 확인이 어려운 형편이다.

75) 임홍빈(1976)에서 가상은 '-거-' 자체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주절에 대한 종속절 전체의 의미 관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76) 허웅(1975:522) 참고

77) 이숭녕(1961:301) 참고

假想法으로 설명하지만 '-거-'는 가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78] (1가)는 나라에 惡道가 없음을 화자가 확신있게 단정하고 있다. 즉 전술의 상황을 확정된 사실로 인식하므로, 진실의 세가 있겠는가 하는 반어형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79] (1나) 역시 '-거니'에 반어형이 연결되는 것이다.

연결어미 「-ㄴ댄」은 가정, 조건을 나타낸다.

(2) 如來ㅅ 주머귀에 견주습건댄 事義 서르 곧도소이다 (능엄 1:99)

(3) 가. 다시곰 聖人ㅅ 말ᄉᆞ믈 推尋ᄒᆞᄉᆞ온댄 기피 發ᄒᆞ샨 고디 겨샷다 (능엄 4:106)

나. 내 말옷 거슬린댄 날웨롤 몯 디나아 阿鼻地獄에 뻐러디리라 (월석 23:66)

다. ᄒᆞ다가 우리 큰 法 즐기는 ᄆᆞᅀᆞ미 잇던댄 부톄 우리 爲ᄒᆞ야 大乘法을 니ᄅᆞ시리라ᄉᆞ이다 (월석 13:36)

(2)(3)의 용례는 「-ㄴ댄」이 조건절을 이루는 것으로 '-거-', '-리-', '-더-'도 결합됨을 볼 수 있다. '-거-'를 가상으로 설명한다면 '-리-', '-더-' 또한 가상이라고 해야한다. 즉 가정은 '-거-'의 기능이 아니라 연결어미의 의미일 뿐이다. (2)와 (3가-나)는 모두 단순한 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3다)는 '-더-'가 통합된 용례로 과거 사실의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큰 법을 즐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가 우리를 위하여 대승법을 이르셨을 것입니다」의 해석이다.

---

78) 최태영(1965:61-68)에서 '-거니'형의 용례 「佛法이 ᄒᆞ마 佛法이 아니어니 差別혼聖果ㅣ들 또 잇데 實이 이시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佛法이 이미 佛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indicative가 아닌 것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사고가 요하는 문이라고 하여 이숭녕의 反意 假想法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79) 안병희(1967:225)에서 '-니'앞에 '-거/어-'가 연결되면 수사의문 곧 반어법으로써 강조된 결론의 전제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연결어미 '-든/ᄃᆞᆫ'은 가정, 조건, 상황을 나타낸다. '-든'은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쓰이는 일이 없고 '-더-'와 '-거/어-'와 결합하여 '-거든', '-더든'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는 '-거든'은 하나의 어미로 파악되지만 중세국어에서 '-거시든'의 형태에서 '-시-'에 의해 분리 가능하고 '-더든'과의 비교가 가능함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 가. 그 우희 올아 안자 하ᄂᆞᆶ긔 비ᅀᆞᆸ보ᄃᆡ 내 眞實ㅅ ᄆᆞᅀᆞ므로 아바님 보ᅀᆞᆸ고져 ᄒᆞ거든 ᄇᆞᄅᆞ미 부러 뎌 ᄀᆞᅀᅢ 건내쇼셔 (월석 8:99)

나. 麗運이 衰ᄒᆞ거든 나라ᄒᆞᆯ 맛ᄃᆞ시릴ᄊᆡ 東海ㅅ ᄀᆞᅀᅵ 져재 ᄀᆞᆮᄒᆞ니 (용6)

(5) ᄒᆞ다가 네 원숫 지블 보고져 ᄒᆞ거든 오직 네 소ᄂᆞᆯ 조차 보라 (관음 11)

(6) 네 아랫 뉘예 이 經을 바다 디녀 닐그며 외오며 ᄂᆞᆷᄃᆞ려 니ᄅᆞ디 아니ᄒᆞ더든... ᄲᆞᆯ리 得디 몯ᄒᆞ리러니라 (석보 19:34)

(4)는 '-거든'의 용례로 조건이 아닌 상황 설명이다. (5)는 '-거든'이 조건절을 형성하는 구문이고, (6)은 '-더든'의 용례로 역시 조건절이다. (4)의 용례 '-거든'에서 時相기능은 파악되지 않는다. (4가)는 「내가 진실의 마음으로 아버님을 뵙고자 하니」로 해석된다. (4나)는 「高麗의 運이 衰하였으니」의 해석이다. 화자가 확신하고 있는 상황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5)는 단순한 가상이고 (6)은 과거 사실의 반대로 해석된다. (5)는 「만약 네 원수의 집을 보고자 한다면」으로, (6)은 「남에게 이르지 않았더라면」으로 해석된다.[80] 가정법 '-거든'에서 '-거-'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고 '-더

80) 이인모(1976)에서는 '-던댄'의 가정법을 영어의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응되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든'과 비교하여 그 기능이 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된다.[81]

연결어미 「-거나 -거나」, 「-거늘」, 「-건마른」, 「-거니와」 등은 '-거-'이외의 다른 선어말어미와 나타나는 용례가 없어 그 의미 비교가 불가능하다. '-거-'와 결합이 강화되어 '-거-'의 형태소 확인이 어려우며 '-거-' 단독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3) 관형형에서의 의미

연결어미에서 '-거-'의 쓰임이 어미화되어 현대국어에까지 쓰이는데에 비해 '-거-'의 관형형에서의 쓰임은 중세국어 자료에서도 그리 일반적이지 못하다. '-거-'가 관형형과 결합되는 용례는 꾸밈을 받는 말이 한정되어 있다.[82] 대부분 의존명사 '-디-'에 연결되어 쓰인다. 그리고 그 기능도 분명하지 않다.[83] 관형형에서 '-더-'의 쓰임이 미완료相으로 현대국어에까지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거-'는 완료라는 전대의 기능이 더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이미 한정된 쓰임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 죽다가 살언 百姓이 (용 25)

(2) 가. 내 어미 죽건디 아니 오라니 (월석 21:27)

나. 耶輸ㅣ 니ᄅ샤ᄃᆡ 如來 太子ㅅ 時節에 나ᄅᆞᆯ 겨집 사ᄆᆞ시니...

妻眷ᄃᆞ외얀 디 三年이 몯 차 이셔 世間ᄇᆞ리시고 (석보 6:4)[84]

81) 영어에서도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완료의 구별은 동사의 시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82) 허웅(1975:647) 참고.

83) 고영근(1981:115-116)에서는 '-거-'의 결여형과 비교해 경화된 화자의 태도가 엿보인다고 하였다.

84) 김종태(1985:212) '-언'의 해석을 완료의 '-어-'와 '-ㄴ'이 겹침으로 해서 단순한 완료의 개념보다는 더 앞서서 완료된 행위의 표현, 즉 과거완료의 개념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닌가 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과거완료는 기준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은'과 비교해서 '-언'에서 더 앞서는 완료의 해석은 보이지 않는다.

다. 아돌와 여희연디 쉬나문 히어다 (월석 13:9)

(1)은 관형형 '-은'에 '-거-'가 쓰인 용례이다. (2)는 역시 관형형 은'에 쓰인 것으로 꾸미는 말이 의존명사 '디'에 한정되어 있다.

(3) 가. 디나건 無數劫에 부텨 겨샤더 (월석 8:59)[85]

나. 出家호 사르문 쇼히 곧디 아니호니 (석보 6:22)

나진석(1971)에서는 마침법에서와 같이 매김꼴에서도 '-거-'는 끝남의 뜻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3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가 나타나지 않는 「-은」도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됨을 볼 때 완료의 의미는 잉여적인 것이고, 서법적 기능도 나타날 수 없다. 관형형에서 '-거-'가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의미의 중화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85) 고영근(1981:115-6)에서는 '-거-'의 결여형과 비교해서 경화된 화자의 태도가 엿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형형에 쓰인 '-거-'의 기능을 화자의 태도에서 찾는 것은 무리이다. 그 쓰임이 제한 되는 것은 前代의 時相 기능이 소실되면서 남은 잔재형이라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거-'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비록 현대국어에서는 '-거늘', '-거니', '-거든' 등의 연결어미 통합형이나 명령형 '-거라'에서 잔재가 확인되지만 중세국어에서 '-거-'는 연결어미에서 뿐만아니라 평서형, 의문형, 관형형에도 쓰이던 생산력있는 선어말어미로서 자격을 가졌다.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들을 식별하고 통합적 특성을 검토하여 '-거-'의 문법적 의미를 찾아 보았다.

'-거-'는 이형태 '-어1-'과 '-나-'를 갖는다. 그 외에 '-거-'와 관계되어 논의되는 형태 '-어2-'가 '-거-'와 분포가 동일하며 의미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 이형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거-'와 '-어2-'는 분포와 의미면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거-'는 서법범주에서 '-어2-'는 완료의 상범주에서 설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선택되는 용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의 용례보다 '-어2-'의 용례가 완료로의 해석이 두드러지는 것은 '-거-'는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인 형용사와 지정사, 이른바 존재사와의 쓰임이 많아 그 해석이 현재상태로 되는 반면, '-어2-'는 타동사에 주로 쓰이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거-'의 의미는 '-거-'가 쓰이지 않는 활용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은 '-거-'의 쓰임과는 관계없이 과거로 해석이 되며, [+상태성]의 상적 특성을 가지는 용언은 '-거-'의 쓰임과 관계 없이 현재 상태로 해석된다. 즉, '-거-'는 시제에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고 화자의 사태에 대한 주관적이 태도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다. 화자가 발화시 현재에 사건을 확정적인 사태로 단정하여 말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선택되는 것이었다.

'-거-'가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특성은 '-거-'의 기능변이의 가능성을 반영하는데 '-거-'의 선어말어미와의 배열순위는 다음과 같이 ①에서 ②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어간 +	습 + ① 거 + 시 + ᄂᆞ + 오 + 리 + ② 거 + 니 + 이 (더) (더)	+ 다

①의 위치에서 '-거-'는 '-시-'를 앞서 '-거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②의 위치에서 '-시거-', '-시리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배열순위의 변화는 '-거-'의 소성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배열순위의 변화는 '-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변화의 원인은 '-엇-'이 형성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고, '-엇더-', '-엇거-'의 형태에서 '-엇-'은 완료지속으로, '-더-'와 '-거-'는 서법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거-'와 '-더-'는 완료, 미완료의 상범주의 대립에서 확정, 회상의 서법범주의 대립으로 그 기능이 변화하는 것이다.

'-더-'와 '-거-'는 동일순위에서 배타적 분포로 나타나며, '-거-'와 '-더-'는 '-ᄂᆞ-'와 결합되는 용례가 없다. '-거-'는 '-리-'와 결합가능한데 '-리어-'의 해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나타낸다.

어말어미와의 통합관계를 보면 평서형 종결형에서 '-거-'의 서법적 기능은 비교적 잘 드러난다. 그러나 연결어미와 결합은 점차 굳어져 어미화되고 있다. '-거-'가 완료의 의미로 기능하는 관형형에서의 쓰임은 제한되어 나타난다.

참 고 문 헌

고영근 (1965),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

------ (1967), "현대국어의 선어말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특히 배열의 차례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1.

------ (1978), "形態素의 分析 限界". 「언어학」 3.

------ (1980), "中世語의 語尾活用에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 「국어학」(국어학회) 9.

------ (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敍法」. 탑출판사.

------ (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교 출판부.

------ (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一志社.

권용경 (1990), "十五世紀 國語敍法의 先語末語尾에 대한 硏究".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웅 (1986), 「十五世紀 諺解書의 口訣硏究」. 螢雪出版社.

김석득 (1974), "한국어의 시간과 시상". 「한볼연구」 1.

------ (1987), "'완료'와 '정태지속'에 대한 역사적 정보". 「한글」 196.

김승곤 (1975), "中世國語의 時相硏究". 「省谷論叢」 6.

김종태 (1985), "15세기 국어의 안맺음씨끝 「아/어」, 「가/거/나」에 대하여". 「嶺南語文學」 12.

------ (1987), "15세기 국어의 「-아 잇-」결합어형에 대하여". 「嶺南語文學」 14.

김차균 (1990),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나진석 (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남기심 (1978), 「국어 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박병채 (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배희임 (1974).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거-} {-어-}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수 (1983). "({었})던에 관하여 - 시상적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통사 . 의미론(고영근, 남기심)」. 탑출판사.
서태룡 (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안병희 (1958). "중기어의 부정어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 (1967). "문법사" 「한국 문화사 대계 V. (언어, 문학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유창돈 (1963). "선행어미 "-가/거-, -아/어-, -나-" 고찰". 「한글」 132.
이광호 (1976). "중세국어 시제어미에 대하여".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형설출판사.
이기갑 (1981). "15세기 국어의 상태지속상과 그 변천". 「한글」 173, 174.
이덕흥 (1985). "中世國語의 活用接尾辭 {아/어} 및 {거}와 {시}의 결합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94. 국어국문학회.
이숭녕 (196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이승욱 (1967).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가/거->". 「국어학논집」 1.
------ (1970). "과거시제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合.
------ (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일조각.
------ (1977). 「敍法과 時相法의 交叉現象」.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이인모 (1968). "중세국어의 과거시제 연구". 「국어국문학」 41.
------ (1976). 「고전국어의 연구」.
이필영 (1989). "相形態와 동사의 相的特性을 통한 相의 考察". 「周時經學報」 3.

이현희 (1982),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硏究". 「국어연구」 52.

임홍빈 (1976a), "부사화와 대상성". 「국어학」 4.

------ (1976b), "先語末 {-거-}와 對象性". 「논문집」 11. 국민대.

------ (1980), "{-겠-}과 대상성". 「한글」 170.

------ (1983), "國語의 '絶對文'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정문수 (1984), "상적특성에 따른 한국어의 풀이씨의 분류". 「문법연구」 5.

정영숙 (1986), "현대국어와 15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의 비교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윤정 (1989), "15세기 우리말 씨끝 {-니-} {-리-}에 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재은 (1992), "선어말어미 {-거-}의 변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동주 (1988), "15세기 국어의 안맺음씨끝 '-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태영 (1965), "中世國語의 Prefinal ending {-거-}에 關한 硏究". 「국어연구」 17.

한동완 (1986), "과거시제 '-었-'의 통시론적 고찰". 「국어학」 15.

한재영 (1986), "中世國語 時制體系에 對한 管見: 선어말어미 {더}의 位置 定立을 中心으로". 「언어」 11-2.

허 웅 (1955), 용비어천가(주해). 정음사.

-----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1991), 「15,16 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油谷幸利 (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 aspect를 중심으로- ". 「조선학보」 87.

鹽田今日子 (1993), "중세국어 '-거-'와 '-아/어-'의 Aspect적 의미의 차이 -'거늘'과 '어늘'의 용례를 통하여".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연구,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논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편.

Bybee, J. L. (1985), 「Morphology -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 9.

ABSTRCT

A Study on the Prefinal Ending '-kə-' of the Middle Korean

Koo Jae-h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confirming allomorphs of '-kə-' and finding out the grmmatical meaning of it, which had productivity in the middle Korean.

In chapter Ⅱ, I identified the morph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 '-na-' and '-ə-' of '-kə-'. Also I examined another '-ə-',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morph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 '-ə-'.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kə-' and '-ə-' in meaning and distribution.

In chapter Ⅲ, the grammatical meaning of '-kə-' was studied through the distribution in which '-kə-' was used, that is to say, through the relationship of verbs, other prefinal endings, endings. Compared with the aorist form, the grammatical meaning of '-kə-' was not concerned with the past tense and perfective aspect. Namely, '-kə-' was concerned with the attitude of a speaker,

who believes the situation as confirmed, fixed affairs.

The arrangement order and combination of prefinal endigs supported the meaning of '-kə-' and the change of the meaning. I examined the arrangement order of prefinal endings and found out '-kə-' was used alternatively in the form of '-sikə-' or '-kəsi-'. This arrangement gradually became fixed into '-sikə-', and the meaning of '-kə-' was changing into that of Mood, that was concerned with the speakers confirmative, determative emotions. This kind of change was the same in the '-tə-'. The cause of these change is supposed to be the forming of '-əss-'. I found out that '-kə-' in '-əsskə-' represents not perfective aspect but confirmation.

The meaning of '-kə-' in the Mood was clearly presented in the declarative sentence. But it seems that '-kə-' being joined to conjunctive endings, they became comfound-form and '-kə-' lost its meaning.

'-kə-' had already lost temporal and aspectual meaning in Middle Korean, and that means '-kə-' was chosen by the the speaker's attitude. When a speaker affirmed that a situation would happen or happened, '-kə-' was used.